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아동가족학석사 학위논문

온 가족이 모여있는 가상의 거실:

기혼자의 가족단톡방 활용 체험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이 지 훈

온 가족이 모여있는 가상의 거실:

기혼자의 가족단톡방 활용 체험

지도교수 이재림

이 논문을 아동가족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이지훈

이지훈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2월

위원장 진미정 (인)

부위원장 Grace H. Chung (인)

위원 이재림 (인)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인스턴트 메신저 단체대화방(이하 단톡방)을 활용한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혼자는 무엇을 체험하며, 이들에게 가족단톡방의 의미는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가구 규모가 축소되고 개인의 사회적 시간이 증가하여 가족이 대면으로 소통하는 시간이 많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가족단톡방은 가족이 비대면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자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핵가족뿐만 아니라 확대가족, 기타 친인척과도 단톡방을 활용해 소통한다는 점에서, 가족단톡방은 더 넓은 범위의 하위체계를 포함해 가족체계를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과 단톡방을 활용하여 상호작용하는 것을 가족실천의 예로 볼 때, 기혼자의 가족단톡방 활용 체험을 연구함으로써 오늘날 한국가족이 단톡방에서 어떻게 가족을 실천하고 구성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역할, 정체성, 상호작용, 맥락에 따라 개인이 의미를 구성한다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서 단톡방 활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소통채널로 등장한 가족단톡방의 맥락, 한국가족의 상호작용 특성 등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자녀, 배우자,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인스턴트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일상적으로 소통하며, 가족단톡방이 한 개 이상 있는 성인남녀 10명이었다. 반구조화된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온 가족이 모여있는 가상의 거실, 가족단톡방’, ‘각자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가족단톡방’, ‘유용하지만,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가족단톡방’이라는 3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단톡방을 활용하여 형성가족뿐만 아니라 본인이나 배우자의 원가족, 친인척 등 다양한 가족구성원과 소통하였다. 그 안에서 참여자들은 가족과 일상과 정보를 공유하고 가족행사를 논의하였다. 단톡방에 가족만 있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은 편하게 소통하였지만, 반

대로 가족이기에 답장을 기대하거나 메시지를 조심스럽게 작성하기도 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각자의 방식에 맞게 가족단톡방을 주체적으로 활용하였다. 참여자들은 가족관계 및 대화주제에 따라 단톡방에 포함할 가족구성원을 선택했으며, 다른 구성원과 갈등이 있을 때 참여자와 일부 가족구성원들은 단톡방에서 나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은 단톡방을 통해 가족과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소통하였다. 예를 들어, 불편한 관계의 가족구성원에게 감정을 배제하고 연락할 수 있었고, 직접 메시지를 교환하지 않는 가족의 일상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텍스트 중심이라 메시지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고, 메시지의 내용이 단톡방에 있는 모든 구성원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면대면 대화나 전화를 함께 활용하였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신체를 맞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은 가족단톡방이 면대면 대화나 전화를 대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체험을 토대로 볼 때 가족단톡방의 의미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가족단톡방은 다양한 하위체계에 속해 가족관계를 이어가는 가상의 거실이었다. 기혼자는 단톡방을 통해 가족과 비대면으로 근황을 빠르게 공유하면서 관계를 느슨하게라도 이어갔다. 그러나 기혼자의 경계에 따라 가족과의 상호작용 방식의 차이가 있었다. 둘째, 가족단톡방은 가족을 주체적으로 실천하기에 적절한 가상의 거실이었다. 가족과의 대면 소통이 감소하는 시점에 기혼자는 단톡방을 통해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일상적으로, 규칙적으로 가족을 실천하였다. 또, 가족단톡방은 가상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기혼자는 본인의 가족관계 및 상황에 따라 단톡방을 주체적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젠더와 연령에 따라 가족 내 위계와 역할이 차별화되는 한국가족에서 가족단톡방은 전통적인 가족규범이 상호작용 패턴을 결정하는 가상의 거실이었다. 기혼자가 단톡방을 활용하여 가족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가부장적 가족규범이 작동하면서 젠더화되고 위계화된 상호작용 방식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넷째, 비대면의 특성이 있는 가족단톡방은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위해 가족과의 대면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가상의 거실이었다.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에서도 단톡방은 가족구성원과 상호작용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가족과의 대면 상호작용을 대체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원가족, 친인척 등 확대가족까지 고려하여 가족단톡방 활용 체험과 의미를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 가족단톡방을 하나의 체계로 이해하여 그 안에서 나타나는 가족의 복잡한 관계와 역동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기혼자가 단톡방에서 어떻게 가족을 실천하는지, 그리고 한국가족의 맥락과 단톡방을 활용한 상호작용, 기혼자의 역할 및 정체성이 어떻게 한국가족의 상호작용에 반영되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지닌다.

주요어: 가족단톡방, 비대면 의사소통, 가족체계, 가족실천, 상징적 상호작용론, 해석학적 현상학
학 번: 2021-29295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4
제 1 절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와 단톡방의 특성	4
제 2 절 이론적 관점에서 본 가족단톡방	7
1. 가족체계이론 관점에서의 가족단톡방	7
2. 가족실천 관점에서의 가족단톡방	8
3.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에서의 가족단톡방	10
제 3 절 가족단톡방을 통한 상호작용	11
제 3 장 연구방법	15
제 1 절 연구참여자	15
제 2 절 자료수집	20
제 3 절 자료분석 및 해석	21
제 4 장 연구결과	23
제 1 절 온 가족이 모여있는 가상의 거실, 가족단톡방	23
1. 핵가족부터 확대가족, 친인척까지 모이는	23
2. 일상과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의사결정하는	27
3. 가족이라 편하지만, 가족이라 기대하고 조심스러운	32
제 2 절 각자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가족단톡방	38
1. 관계에 따라, 대화주제에 따라 조직되는	38
2. 모두가 함께 모일 필요는 없는	41
3. 스스로 나갈 수 있지만 돌아오기는 쉽지 않은	46

제 3 절 유용하지만,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가족단톡방	49
1. 감정을 배제하고 일상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	49
2. 글자라 번거롭고, 모두가 실시간으로 보니 조심하는 ·	51
3. 전화와 만남을 대체할 수 없는	55

제 5 장 결론 및 논의	59
---------------------	----

참고문헌	64
------------	----

Abstract	69
----------------	----

표 목 차

<표 3-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8
<표 4-1> 연구참여자별 가족단독방 구성원	25

제 1 장 서론

본 연구는 인스턴트 메신저 단체대화방(이하 단톡방)을 활용한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혼자는 무엇을 체험하며, 이들에게 가족단톡방의 의미는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카카오톡이라는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이하 메신저)가 2010년 한국에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서로 직접 만나지 않아도 일대일뿐만 아니라 다자간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직장과 같은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가족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도 메신저가 중요한 소통의 채널이 되었다. 가족단톡방은 3명 이상의 가족 구성원이 포함된 단체채팅방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가족 단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60대 성인 중 절반 이상이 가족과 단톡방을 통해 소통하였다(박근희, 2017). 가구 규모가 축소되고, 부모의 장시간 근로나 자녀의 학습시간 등 개인의 사회적 시간이 증가하여 가족이 함께 보내는 대면 공유시간이 많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가족단톡방은 가족이 비대면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자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

가족단톡방은 체계로서의 가족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가족체계이론(Allen & Henderson, 2017; Whitchurch & Constantine, 2009)에 따르면 가족은 상호의존적인 개인으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이며, 가족구성원들끼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가족에는 부모-자녀, 부부,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원가족, 자녀의 배우자까지 다양한 하위체계가 존재하며, 각 하위체계끼리도 영향을 미친다. 가족단톡방 안에 누가 있고, 구성원들끼리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등에 따라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며, 그 안에서 가족 간의 관계와 역동이 드러난다. 특히, 가족단톡방을 통해서 핵가족뿐만 아니라 확대가족, 친인척과도 소통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넓은 범위의 하위체계를 포함하여 가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단톡

방은 가상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실제 가족체계와는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으며, 두 차원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하나의 체계로서의 가족을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단톡방을 통해 가족이 상호작용하는 것은 가족을 실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Morgan(1996)은 가족을 명사(the family)로 사용했을 때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기에, 형용사(family) 혹은 동사(doing family)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Morgan의 가족실천(family practice) 개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제안된 것이다. 실천이라는 개념을 통해 Morgan(1996; 2011)은 행위자의 능동적인 측면, 행동의 일상적이고 규칙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가족을 실천함으로써 행위자들은 가족구성원을 인식하고, 그 자체로 가족을 재구성한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과 단톡방을 활용해 대화를 나누거나 가족 내 역할을 수행하는 일상적인 행위를 가족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기혼자의 가족단톡방 활용 체험을 연구함으로써, 기혼자들이 가족을 실천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단톡방을 통한 가족과의 상호작용 체험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한국가족의 상호작용 특성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따르면, 가족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구성할 때 맥락, 상호작용, 역할, 정체성이 상호영향을 미친다(Goffman, 1959; Stokes & Hewitt, 1976; Stryker, 1968; Turner, 1970). 즉, 단톡방을 통해 가족과 상호작용할 때 한국가족의 맥락, 역할, 정체성 등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소통하는 개인은 의미를 구성한다. 단톡방을 통해 가족과 상호작용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당사자의 체험(lived experiences)을 살펴봄으로써 가족단톡방이라는 새로운 소통채널의 특성, 한국가족의 맥락, 기혼자의 역할 및 정체성 등을 이해하고자 한다.

가족관계나 역동을 고려하여 가족단톡방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가족단톡방을 사용하는 것이 가족의 기능이나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Gong et al., 2021; Zhao et al., 2021)에서는 가족단톡방

이 가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가족단톡방의 수, 사용하는 기능의 수 등에 초점을 두어 단톡방에서 가족과 상호작용하면서 나누는 내용, 관계 양상, 가족 역동 등 단톡방을 통한 가족과의 상호작용 체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심층면접(Resor, 2021; Taipale & Farinosi, 2018)이나 실제 가족단톡방 대화 내역(Fernández-Amaya, 2021; Mogharrab & Neustaedter, 2020; Resor, 2021)을 분석한 연구들은 가족단톡방의 구성원, 내용, 답장 속도, 가족관계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가족단톡방 활용 경험을 다루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서구 가족의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며, 부모-자녀와 같은 세대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한국에서는 가부장제, 가족주의와 같은 맥락에서 부모-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 형제자매, 기타 친인척 등 확대가족과도 단톡방을 통해 소통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맥락에서 단톡방을 활용하여 가족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원가족 등 다양한 가족구성원과 단톡방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기혼자가 무엇을 체험하고, 그 체험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관통하는 연구문제는 ‘가족단톡방을 활용한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이자 성인자녀이고, 배우자이자 형제자매인 기혼자는 무엇을 체험하는가?’이다.

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탐색하기 위해 일상의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체험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van Manen(1990)의 해석학적 현상학 접근을 취하고자 한다. 즉, 가족과 단톡방을 통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그 체험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면서 그 속에 있는 체험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가족의 맥락에서 새로운 소통의 도구인 가족단톡방이 활용되었을 때, 주체로서의 가족구성원이 어떠한 체험을 하는지 살펴봄으로써 현재 한국가족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와 단톡방의 특성

가족단톡방은 메신저의 특성뿐만 아니라 단톡방만의 고유한 특성도 지니고 있다. 먼저, 면대면 대화, 문자, 전화 등 기존의 소통방식과는 다른 메신저의 특성을 살펴본 후, 단톡방만의 특성을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이 단톡방을 활용한 가족과의 소통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살펴볼 것이다.

메신저는 면대면 대화나 문자, 전화와 같은 기존의 소통방식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비대면으로 소통한다. 근거리에서 대화해야 하는 면대면 대화와는 달리 참여자끼리 떨어져 있어도 소통할 수 있다. 전화, 편지, 이메일 등과 함께 메신저를 활용함으로써 비대면으로도 쉽게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이종임, 2014; 정희석, 2012). 이런 점에서 가족과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을 때도 단톡방을 통해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다.

둘째, 메신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문자나 전화는 원거리에서 소통할 수 있지만 글자 수나 전화 시간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메신저는 인터넷이 접속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허상희, 2016), 이용자들은 부담 없이 짧은 메시지를 여러 개 보내거나, 메시지와 함께 이모티콘, 사진, 영상 등을 보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다른 소통방식에 비해 중요하지 않은 일상적인 내용도 가족과 메신저를 통해 편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메신저는 동시적인 특성과 비동시적인 특성을 모두 지닌다. 메신저는 상대방이 메시지를 즉각적으로 확인하여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시적이다(허상희, 2016). 그러나 반대로 두 사람이 모두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야 소통이 가능한 전화와는 달리, 메신저는 사용자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 일방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비동시적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메신저를 통해 가족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원할 때 가족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

넷째, 메신저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소통한다. 전화는 목소리, 어조, 속도, 억양 등 반언어적 상징을 활용하고, 면대면 대화는 반언어적 상징뿐만 아니라 표정, 몸짓, 자세, 시선 등 비언어적 상징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소통하는 상대방의 실제 생각, 기분, 감정 등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메신저는 텍스트를 통해 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상황이나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이종임, 2014). 이러한 점에서 다른 소통방식에 비해 서로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는 등 사용자 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감정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상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편하게 연락할 가능성도 있다.

메신저는 다른 소통방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기능이 있다. 먼저, 메신저에 이름, 프로필 사진, 상태 메시지 등을 설정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들은 자신을 나름대로 표현하고 재구성한다(이종임, 2014). 둘째, 읽음 표시가 등장하면서 수신자가 메시지를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Blabst & Diefenbach, 2017), 이에 따라 표시가 없어지면 곧 답장이 올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생겨나기도 한다(강연임, 2017). 각자의 생활방식을 잘 알고 있는 가족이기에 답장이 없어도 괜찮다고 여길 수 있는 반면, 오히려 가족이기에 기대했던 답장이 오지 않으면 실망할 수도 있다(Resor, 2021). 셋째, 이미지 형태의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다. 초성이나 텍스트 형태의 이모티콘을 이용해 감정을 표현하던 과거와는 달리, 이미지 형태의 이모티콘을 활용하여(Faris et al., 2021)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운 텍스트 중심의 메신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넷째, 메신저가 통합 멀티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이지영, 김주섭, 2014). 메신저를 통해 사진과 동영상을 쉽게 공유할 수 있

으며(강연임, 2017), 전화나 영상통화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금융 서비스나 쇼핑 등의 디지털 콘텐츠가 등장하면서 메시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돈을 송금하거나, 선물을 보내기도 한다. 이를 통해 가족과 전화, 영상통화 등 다른 소통방식과 메시지를 서로 보완하여 연락할 수 있으며, 가족과 돈이나 선물 등도 편리하게 교환할 수 있다.

메신저의 고유한 기능으로 그룹 대화(group communication)가 있다. 한 명의 수신자와 한 명의 발신자끼리 사적으로 대화하는 일대일 대화, 한 명의 발신자가 여러 명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보내지만, 그 수신자는 발신자의 문자만 확인할 수 있는 일대다 대화였던 이전과는 다르게, 메신저가 등장하면서 여러 참여자가 하나의 그룹에 속하여 대화하는 그룹 대화가 가능해졌다(Seufert et al., 2016). 즉, 여러 사람이 한 공간에 모이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톡방은 이용자가 여러 사람을 초대하면서 형성된다. 이때, 초대받은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사람을 단톡방에 초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단톡방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이용자는 단톡방에서 나가고 싶으면 ‘채팅방 나가기’ 버튼을 통해 나갈 수 있다. 이때, 단톡방에 이용자가 나갔다는 알람이 뜨며, 단톡방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용자가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외에도 모든 참여자가 단톡방에 올랐든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다자 간의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타인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게 한다. 이런 점에서 단톡방에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타인의 글을 읽기만 하는 잠복관찰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유정아, 박남기, 2019).

가족과도 그룹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3명 이상의 가족구성원만을 포함한 가족단톡방이 등장하였다. 단톡방에는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형성 가족뿐만 아니라 확대가족, 친인척까지 포함할 수 있다. 가족 간 대면 상호작용이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면으로 만나기 어려운 가족과 단톡방으로 편하게 소통할 수 있다. 이처럼 메신저 및 단톡방의 특성이 가족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 2 절 이론적 관점에서 본 가족단톡방

1. 가족체계이론 관점에서의 가족단톡방

일반체계이론을 가족에 적용한 가족체계이론은 가족을 상호의존적인 개인으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로 본다. 가족구성원이라는 개인의 합보다 가족체계 전체가 더 크다고 보는 관점이다(Bochner & Eisenberg, 1987; Whitchurch & Constantine, 2009). 가족체계는 부모-자녀, 부부 또는 친밀한 파트너, 형제자매, 조부모-손자녀, 기타 친인척 등 다양한 하위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모든 가족구성원은 서로에게 상호영향을 주며, 한 구성원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다른 가족구성원뿐만 아니라 하위체계와 가족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가족체계는 가족을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가족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하나의 전체로 이해해야 한다.

가족단톡방은 가족체계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체계로서 가족을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가족은 단톡방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통해 같이 있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모일 수 있다. 이때, 가족끼리 서로 소통하고 상호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통해 복잡한 관계와 역동을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톡방에 있는 모든 구성원은 모든 대화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아도 서로에게 상호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단톡방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와 같은 핵가족뿐만 아니라 확대가족이나 친인척 등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에 따라 상호작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즉, 핵가족에 집중하여 가족체계를 살펴보는 것과는 달리 가족단톡방을 통해 더 넓고 다양한 하위체계를 포함하여 가족체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단톡방이 가족체계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톡방에 있는 구성원을 살펴봄으로써 가족경계(boundary)를 확인할 수 있다. 경

계는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구성하기 위한 선으로(Yerby et al., 1995), 가족이라는 체계에 포함할 구성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가족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개방체계인데, 가족체계마다 투과성의 정도는 다르다(Allen & Henderson, 2017; Whitchurch & Constantine, 2009). 이 개념을 가족단톡방에 적용하면, 단톡방의 경계는 단톡방에 포함된 사람은 누구이고,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이며, 단톡방의 구성원은 어떻게 변화하는지의 문제이다. 미국인의 가족단톡방 사용 경험을 분석한 Resor(2021)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는 핵가족을 중심으로 가족단톡방을 구성했으며, 한 번 만들어진 단톡방의 구성원은 잘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의 가족경계에 비해 가상의 공간인 가족단톡방에서의 가족경계는 상대적으로 유연할 수 있다. 모든 가족구성원이 단톡방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고, 가족단톡방에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단톡방을 벗어날 수도 있다. 즉, 가상의 공간에서의 경계는 실제 가족체계의 경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가족단톡방은 가족체계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하나의 가족체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가상의 공간이라는 가족단톡방의 특성으로 인해 실제 가족체계와는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족체계를 바라봄으로써 가족을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족실천 관점에서의 가족단톡방

Morgan(1996)은 가족을 명사(the family)가 아니라 형용사(family) 혹은 동사(doing family)로 사용하여 가족에 대해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명사형의 가족은 어머니, 아버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처럼 규범적인 모습의 가족을 반영하며, 한부모가족, 무자녀 부부 등 계속 변화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지 못한다고 보았

다. 또, 규범적인 모습의 가족에 집중하면 일상을 보내는 실제 가족의 모습을 살펴보기 어렵고, 가족의 다양한 역할, 지위, 경험 등을 과도하게 단순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Morgan, 2011). 이런 점에서 Morgan(2011)은 명사형의 가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으로 가족실행(doing family)과 가족실천(family practice)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실행, 실천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 Morgan(1996; 2011)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첫째, 가족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집중하여 행위자의 능동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 행위자를 어머니, 아버지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어머니로서의 행동, 아버지로서의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둘째, 활동의 일상적인 측면에 집중할 수 있다. 결혼, 질병, 사별 등과 같이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생애사건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대화, 식사와 같이 일상적이고 의미 없는 행동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셋째, 활동의 규칙적인 측면도 부각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와 같이 매년 반복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밥을 먹이는 것과 같이 매일 반복되는 행위까지 일상적인 가족생활의 일부로서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넷째, 가족활동을 통해 가족을 유연하게 지정할 수 있다. 가족을 하나의 특정한 형태로 고정하지 않고, 같이 행위를 하는 가족구성원, 상황, 맥락 등에 따라 가족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Morgan(1996; 2011)은 실천이라는 용어가 행위자와 관찰자의 시점을 결합하거나, 역사와 전기 사이의 주요한 연계를 구성할 수 있다는 등의 측면에서 가족실천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단톡방을 통해 가족과 상호작용을 하는 행위는 가족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은 단톡방을 통해 가족과 규칙적으로 소통하는데, 단톡방에서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개인의 역할에 맞게 가족을 실천한다. 즉, 가족단톡방 활용 체험을 통해 기혼자가 그 안에서 어떻게 가족을 실천하고 재구성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에서의 가족단톡방

상징적 상호작용론(symbolic interactionism)은 사회구조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반대로 개인이 상호작용할 때 의미를 규정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회구조가 변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관심을 둔다. 처음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명명한 Mead(1934)는 개인이 단어와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의미를 부여한다는 전제하에, 개인들이 서로 알고 있는 공통된 상징과 해석을 공유하면서 의미를 생성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형성한 의미는 개인의 인식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타인과 사회구조의 인식 또한 반영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오늘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특정 이론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상호작용의 다른 측면을 강조하면서 사회구성주의, 역할이론 등 다양한 하위 이론으로 발전하였다(Klein & White, 1996). 이때 다양한 개념이 개발되었는데, 각 이론에서 일관되고 핵심이 되는 개념으로 ‘정체성(identities)’, ‘역할(role)’, ‘상호작용(interaction)’, ‘맥락(context)’이 있으며, 각 개념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개인은 사회적 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 역할을 지니며, 한 역할에 따라 여러 개의 정체성을 구성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라는 역할에서도 경제적 부양자, 동료, 성적 파트너 등 다양한 정체성이 있는 것이다. 역할은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개인은 역할을 통해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상호작용의 규칙을 유지하기도 한다(Turner, 1970). 상호작용은 언어적, 비언어적 상징을 활용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역할이나 정체성뿐만 아니라 타인과 상황이 지니는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한다(Goffman, 1959). 이때, 개인이라는 미시적 수준과 사회라는 거시적 수준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Stokes & Hewitt, 1976).

정리한 네 가지 개념을 기혼자의 가족단톡방 활용 체험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기혼자는 부모, 자녀, 며느리 혹은 사위와 같은 다양한 ‘역할’

과 ‘정체성’을 지닌다. 이때의 역할과 정체성은 사회적 위치뿐만 아니라 가부장제, 효, 가족주의와 같은 한국가족의 ‘맥락’에 따라 형성된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라는 ‘맥락’에 따라 가족단톡방이라는 새로운 소통방식이 등장하였고, 텍스트, 사진, 이모티콘과 같은 상징을 이용하여 ‘상호작용’하면서 가족과 새롭게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 이처럼, 기혼자가 단톡방을 통해 가족과 상호작용하면서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가족단톡방이라는 새로운 소통채널의 특성, 한국가족의 특성, 현재 기혼자가 지닌 역할 및 정체성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가족단톡방을 통한 상호작용

가족단톡방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지만 가족학뿐만 아니라 컴퓨터-인간 상호작용(human-computer interaction), 의사소통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가족학 외 학문 분야에서는 메신저 플랫폼의 기능이나 디자인적 측면에 집중하여 친구나 직장동료 등과 사용하는 단톡방 혹은 가족단톡방을 사용하는 이유나 동기에 대해 분석하였지만(Church & de Oliveira, 2013; Mogharrab & Neustaedter, 2020; Seufert et al., 2016), 가족관계나 역동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가족의 맥락을 고려하여, 가족단톡방이 가족의 기능이나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Gong et al., 2021; Zhao et al., 2021). Zhao et al.(2021)의 연구에서는 하나 이상의 가족단톡방이 있는 경우 가족 의사소통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가족의 기능과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Gong et al.(2021)도 유사하게, 가족 단톡방의 수와 사용하는 기능(문자, 전화, 사진 공유, 영상 공유 등)이 많을수록 가족 의사소통의 질이 높아져서 가족의 웰빙과 개인의 행복이 높아졌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은 실증적 연구는 가족단톡방의 사용이 가족의 기능과 웰빙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가족단톡방의 개수, 하루에 주고받은 문자의 수, 사용하는 기능의 수 등

단톡방의 기능적 측면에 집중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가족단톡방의 활용은 단톡방에 속한 구성원이나 대화 내용, 사용하는 빈도, 사용할 때 감정 등 다양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가족단톡방의 활용이 가족에게 미치는 단편적인 영향력을 넘어서 가족과의 관계와 역동에 따라 단톡방에서 개인이 무엇을 체험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sor(2021)의 연구는 가족학적 관점에서 가족단톡방의 활용 경험을 살펴본 유일한 선행연구이다. 가족체계이론을 주된 이론적 관점으로 채택한 이 연구는 단톡방의 구성원, 사용빈도, 대화 내용, 가족관계와의 연관성 등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았다. 단톡방의 구성원은 누가 포함되는지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단톡방에 편하게 포함될 수 있는 가족의 기준, 즉 경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Resor(2021)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은 원가족을 단톡방의 구성원으로 당연하게 인식했지만, 확대가족은 그러지 않았다. 또, 단톡방이 한 번 형성된 이후에는 단톡방의 구성원에 변화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자녀의 애인이나 자녀의 미래 배우자와 같이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경우 이 사람을 기존의 가족단톡방에 초대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연구참여자마다 나뉘었다. 대부분은 새로운 단톡방을 만드는 것에 동의했지만, 자녀의 미래 배우자를 가족단톡방에 초대하는 것은 결혼에 대한 축복이자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이기에 기존의 단톡방에 초대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가족단톡방의 사용 빈도는 단톡방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Mogharrab and Neustaedter(2020)의 연구에 따르면, 사촌이나 이모, 고모와 같은 확대가족이 포함된 단톡방보다 부모나 자녀 등 직계가족만 포함된 단톡방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그 안에서도 모든 구성원이 항상 활발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었다. 답장이 꼭 필요하지 않은 이상 답장은 선택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4명 이상의 가족일 때 최소 1명이 단톡방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Resor(2021)의 연구에서도 단톡방에서 가족구성원의 성별이 한쪽으로 치

우쳐져 있으면 소수의 성별이 대화에 덜 참여했다. 사용 빈도에 따라 문자의 길이에도 차이가 있었다. 가족단톡방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인사말 없이 짧은 길이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사말과 함께 주로 긴 메시지를 보냈다(Mogharrab & Neustaedter, 2020).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족단톡방에서는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사소한 대화를 주로 주고받는 경향이 있다(Taipale & Farinosi, 2018). 예를 들어, 단톡방에서 가족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가족끼리 서로 건강한지 묻는 연락이 많아졌다(Resor, 2021). 또, 단톡방은 결혼, 사고, 죽음 등 가족 내 대소사가 있을 때 논의하는 창구가 되었다. 특히, 가족구성원이 출산한 경우에는 아기의 사진을 공유하였다. 세대에 따라 대화주제가 달라지기도 했다. Resor(2021)에 따르면, 청년 자녀들은 친구와 다투는 등 일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단톡방을 통해 부모에게 조언을 얻었다. 반대로, 중년 부모는 첨단기기 사용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자녀에게 질문하였다. 그러나 양육이나 미래의 삶과 같은 고민이 있을 때는 자신의 노년 부모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노년 부모는 결혼한 중년 자녀에게 좋은 하루 보내라는 일상적인 문자를 보냈고, 이는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끼리 이어주는 기분이 들게 하였다(Resor, 2021; Taipale & Farinosi, 2018). 단톡방 안에서 정치, 사회 문제와 같은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 가족끼리 토론하기도 했다. 가족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자신의 반대 의견을 개방적으로 표현하거나 짧은 욕설을 사용하는 등 직장 단톡방과 비교했을 때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경향이 있었다(Fernández-Amaya, 2021).

가족단톡방을 활용하면서 경험하는 감정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가족과 꾸준히 연락할 수 있게 하여 가족관계에 긍정적이라는 연구도 있지만(Resor, 2021), 오히려 불안감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킨다는 연구도 있다(Mogharrab & Neustaedter, 2020). Resor(2021)에 따르면, 가족단톡방은 가족과 연결되어있다는 느낌

을 주었다. 이러한 점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은 단톡방을 통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 중 누군가에게 답장을 받을 수 있고, 가족들은 자신을 도와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친구나 직장동료가 있는 단톡방에 비해 가족단톡방에 올라온 메시지는 무시하지 않고 모두 읽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바쁜 일이 있거나, 메시지를 확인하기 귀찮은 등 메시지를 읽지 않는 상황에 왔을 때 가족에 포함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fear of missing out)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Mogharrab and Neustaedter(2020)에 따르면, 자신과 관계없는 문자를 계속 보내거나, 가족으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거나, 메시지의 내용을 오해했을 때 이것은 스트레스로 이어져 가족단톡방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래서 한 가족구성원이 스티커나 이모티콘 등을 계속해서 보내자 다른 구성원이 단톡방을 나가기도 했다. 이렇게 가족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연구참여자들은 단톡방을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일부러 답장을 늦게 하며 가족단톡방을 적게 사용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가족단톡방 활용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 있으나, 국내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20-60대 성인 중 절반 이상이 가족단톡방을 사용하고 있다(박근희, 2017). 가부장제, 유교문화 등 한국 가족의 맥락과 역할, 정체성 등이 합쳐져 가족의 상호작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가족의 단톡방 활용 체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가족단톡방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시댁과의 단톡방이다(김자아, 이상봉, 2018; 박은지, 2019). 이는 고부관계가 편하지 않은 한국의 가족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즉, 한국가족의 맥락을 고려하여 메신저를 통한 가족과의 단톡방 활용 체험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참여자

기혼자의 가족단톡방 활용 체험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녀, 배우자,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가족단톡방이 한 개 이상 있는 성인남녀를 모집하였다. 즉, 기혼이면서 부모이자 성인자녀로서 윗세대, 아랫세대, 배우자 모두와 카카오톡 및 가족단톡방으로 소통하는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여러 가족구성원과 메신저를 통해 소통하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했을 때 가족과의 다양한 상호작용 체험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여러 메신저 중 가장 많은 국민이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모바일인덱스, 2021)에서 메신저를 카카오톡으로 한정하였다.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 연구자의 SNS, 외부 게시판에 모집문건을 게시하고, 연구자의 지인에게 모집문건을 전달하였다. 연구 참여의 자발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자의 지인은 모집하지 않았으며, 연구자의 지인이 모집문건을 배포하였을 때 연구 참여 신청은 연구자에게 직접 하도록 하여 지인이 모집문건을 전달받은 사람의 참여 여부를 알 수 없도록 주의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힌 참여자에게 연구의 내용과 방법, 참여자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받고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본인의 교육수준, 가족과의 동거 여부, 자녀의 수, 자녀의 연령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참여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면접 과정 중 유사한 진술이 반복되면 자료가 포화되었다고 판단하고 면접을 종료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총 10명의 연구참여자가 심층면접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1>과 같다. 10명의 연구참여자 중

8명이 여성, 2명이 남성이었다. 연령은 만 37세(1985년생)에서 만 54세(1968년생)까지로, 30대 후반이 2명, 40대는 4명, 50대는 4명이었다. 이들은 출생 코호트로 보았을 때 후천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적응해가는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에 해당하였다. 한국에 처음 스마트폰이 2009년에 출시되고, 카카오톡이 2010년에 첫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메시지를 20대 중반에서 30대 사이에 처음 접하게 되었다. 즉, 문자, 전화 등 기존의 비대면 소통방식을 사용하다 메시지가 새롭게 나타나면서 적응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연구참여자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가 1명, 대학교(2-3년제) 졸업은 3명, 대학교(4년제) 졸업은 4명, 대학원 졸업은 2명이었다. 연구참여자 중 5명이 풀타임으로, 2명은 파트타임으로 근무했으며, 나머지는 전업주부였다. 연구참여자 중 1인가구인 참여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형성가족과 동거하였다. 배우자, 자녀 모두와 함께 거주하는 참여자는 6명이었으며, 해외 근무, 학업으로 인한 자취, 결혼으로 인한 독립 등 형성가족의 일부가 따로 거주하는 참여자는 3명이었다. 자녀의 수는 2명인 참여자가 총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가 1명인 참여자는 1명, 3명인 참여자는 2명이 있었다. 첫째 자녀 중 10대는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는 3명, 30대와 10대 미만이 각각 1명씩 있었다. 자녀들은 주로 태어났을 때부터 디지털 기기를 접하여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에 해당했다. 유희지 씨의 둘째 자녀를 제외하고는 연구참여자의 모든 자녀가 개인 스마트폰을 갖고 카카오톡을 통해 소통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최소 두 개의 가족단톡방에 참여하였다. 배우자와 자녀로 구성된 형성가족 단톡방은 모두가 있었으며, 참여자마다 부모와 형제자매가 포함된 원가족 단톡방, 형제자매만 포함된 형제자매 단톡방,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등이 포함된 배우자 원가족과의 단톡방, 올케들만 있는 단톡방 등 다양하게 있었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여러 개의 가족단톡방이 있을 때 이름을 지어서 구분했는데, ‘**마을 단톡방’처럼 주

로 각 가족이 거주하는 위치와 ‘단톡방’을 합쳐 이름을 지었다.

가족단톡방의 사용빈도는 가족단톡방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달랐다. 형성가족 단톡방은 주로 가족이 같이 있지 않은 평일에 사용하였고, 가족과 함께 있는 주말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 원가족 단톡방이나 배우자 원가족 단톡방은 용도에 따라 빈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일상적인 대화를 주로 나눌 때는 거의 매일 사용하였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용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한 번 만든 단톡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일시적으로만 사용하는 단톡방도 있었다.

<표 3-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이름 (가명)	연령 (만)	성별	교육수준	고용형태	가구원 수	자녀 성별	자녀 연령	자녀 동거 여부	배우자 동거 여부	가족단특방 개수
배소정	43	여	대학교(4년제) 졸업	풀타임 (사무직)	4	여	16	동거	동거	3
						남	13	동거		
강혜경	54	여	대학원 졸업	파트타임 (서비스직)	3	남	28	비동거(입대)	동거	2
						남	24	비동거(입대)		
						여	19	동거		
유혜지	37	여	대학교(2-3년제) 졸업	풀타임 (교육직)	4	여	8	동거	동거	5
						여	6	동거		
문소연	52	여	대학교(4년제) 졸업	전업주부	3	남	23	비동거(유학)	동거	3
						남	20	동거		
최연서	53	여	대학교(2-3년제) 졸업	전업주부	3	남	27	동거	동거	2
						여	24	비동거 (해외 근무)		
차선희	53	여	대학교(2-3년제) 졸업	전업주부	1	남	30	비동거 (결혼 독립)	비동거 (해외 근무)	5
						남	24	비동거 (학교 자취)		

이름 (가명)	연령 (만)	성별	교육수준	고용형태	가구원 수	자녀 성별	자녀 연령	자녀 동거 여부	배우자 동거 여부	가족단독방 개수
홍채아	38	여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	파트타임 (서비스직)	4	남	15	동거	동거	5
						남	10	동거		
전미경	48	여	대학교(4년제) 졸업	전업주부	5	여	18	동거	동거	3
						여	15	동거		
						여	12	동거		
한세훈	45	남	대학원 졸업	풀타임 (사무직)	3	남	11	동거	동거	3
정일영	44	남	대학교(4년제) 졸업	풀타임 (사무직)	4	여	14	동거	동거	2
						남	9	동거		

제 2 절 자료수집

기혼자의 가족단톡방 활용 체험과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일대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¹⁾ 심층면접은 연구주제에 대해 연구참여자의 감정, 의견, 경험을 생생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oyce & Neale, 2006). 연구참여자가 심층면접을 2회 실시하였으며, 1회당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소요되었다. 연구참여자가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참여자의 자택, 직장, 연구참여자가 거주하는 동네의 가까운 카페 등이었다. 심층면접의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하였고, 면담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였다.

심층면접에서는 반구조화된 면접 가이드를 활용하였으며,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체험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질문의 순서와 내용을 유동적으로 조정하였다. 첫 번째 면접에서는 “평소에 가족들과 카카오톡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여기서 가족은 같이 사는 가족 이외에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등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최근 가족과 카카오톡 및 가족단톡방으로 길게 대화한 내용, 대화할 때의 기분, 주로 사용하는 기능, 사용할 때 감정, 문자·전화·면대면 소통과의 차이 등 카카오톡 및 가족단톡방을 통한 상호작용 경험을 물어보았다. 두 번째 면접에서는 첫 번째 면접에서 부족하거나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여 내용을 보충하고 새롭고 심층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톡방을 통한 가족과의 상호작용 체험을 이해하기 위해 심층면접 기록 외에도 현장노트, 설문지, 연구참여자의 가족가계도 등을 수집하였다.

1) 연구참여자 중 문소연, 최연서, 차선혜 씨는 첫 번째 면접을 세 명이 함께하기를 원하여 FGI 형식으로 실시하였고, 이때 카카오톡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 및 경험을 위주로 질문하였다. 두 번째 면접은 일대일로 실시하여, 가족의 맥락에서 구체적인 경험을 질문하면서 첫 번째 면접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였다. 연구결과에는 공동으로 진행한 인터뷰를 해당 참여자의 인터뷰 1로 표시하였다.

첫 번째 면접이 끝난 이후 설문지를 통해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또, 두 번째 면접이 시작하기 전에 연구참여자의 가족가계도를 그려 참여자의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현장노트에는 연구자가 면접 당시 들었던 생각이나 질문, 연구참여자의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 등을 관찰하여 메모하였다. 참여자가 가족과의 카카오톡 내용을 직접 보여준 경우에는 노트에 메모하여 전사자료에 반영하였다. 이상의 자료수집 과정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제 3 절 자료분석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van Manen(1990)의 해석학적 현상학의 관점을 토대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van Manen(1990)의 해석학적 현상학은 일상의 다양한 체험(lived experiences)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체험의 본질적 의미구조를 반성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이다(김애령, 2009; 정상원, 2018). van Manen이 강조하는 체험은 다른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론에서 탐구하는 경험과는 개념의 차이가 있다. 체험은 개인이 경험한 ‘바로 그 순간의 경험’을 의미한다(van Manen, 1997). 개인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경험은 개념화, 범주화, 또는 반성의 결과로 각자의 인식에 따라 변형될 수 있다. 즉, 경험은 그것을 겪을 당시의 체험과는 차이가 있으며 해석학적 현상학에서는 바로 그 당시의 경험인 체험을 탐구 대상으로 설정한다.

현상의 본질(essence)에 대한 통찰은 체험에 내재된 의미구조를 반성적으로 탐구하고, 언어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과정을 포함한다(van Manen, 1997). 그러나 체험의 의미와 본질은 다차원적이고 다층적인 특성이 있어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우며, 개인은 체험의 순간에 그 체험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구조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반성적 활동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van Manen, 1990). 즉, 체험의 본질적인 의미구

조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전체에서 벗어나 ‘판단중지’를 하고, 경험을 ‘겪은 대로’ 체험하고, 반성적 성찰과 해석학적 순환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van Manen, 2014).

기혼자의 가족단톡방 활용 체험의 본질적인 의미구조를 탐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참여자의 체험의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반복되고 공통적인 어휘나 문구와 같이 의미 있는 단어나 문장 등을 찾아 코딩하였다. 이렇게 추출한 의미단위의 다양한 내용 및 속성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의미단위를 ‘카톡의 전반적인 특성’, ‘가족 전체와의 상호작용’, ‘배우자와의 상호작용’, ‘자녀와의 상호작용’, ‘원가족과의 상호작용’, ‘배우자 가족과의 상호작용’, ‘가족 외 상호작용’, ‘카톡 메시지 외 기능’, ‘본인의 스마트폰 사용’이라는 범주로 먼저 분류하였다. 범주 안에는 가족단톡방의 종류와 상관없이 참여자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현상도 있지만, 특정한 가족단톡방에서만 나타난 현상도 있었다. 참여자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현상에 대해서는 형성가족 단톡방, 원가족 단톡방 등 다양한 단톡방에서의 경험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하였다. 반대로, 특정한 가족단톡방에서만 나타난 현상도 의미 있다고 판단하여 참여자의 경험을 범주화할 때 반영하였다. 이처럼, 각 범주에 속해있는 의미단위 중 유사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내용을 분류하여 참여자의 경험을 범주화하였고, 찾아낸 하위주제를 중심으로 체험을 대주제로 통합하였다. 이후, 반성적 성찰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체험을 관통하는 의미와 본질을 발견하고 해석하였다. 본질의 현상을 기술하고 해석할 때는 부분과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이남인, 2014). 이상의 코딩 과정은 질적 자료분석 소프트웨어 중 하나인 MAXQDA2022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질적 연구 경험이 많은 지도교수와 수차례 회의를 통해 자료수집에서부터 분석 및 해석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 4 장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기혼자의 가족단톡방 활용 체험으로 ‘온 가족이 모여있는 가상의 거실, 가족단톡방’, ‘각자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가족단톡방’, ‘유용하지만,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가족단톡방’이라는 세 개의 주제를 추출하였다.

제 1 절 온 가족이 모여있는 가상의 거실, 가족단톡방

1. 핵가족부터 확대가족, 친인척까지 모이는

연구참여자들은 단톡방을 가족이 모이는 가상의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정일영 씨는 동거하는 배우자와 두 자녀와 함께 집에 있을 때 주로 거실에서 소통하였다. 그러나 학교, 학원, 직장 등으로 가족과 대면으로 소통하기 어려울 때 가족단톡방을 활용하였다. 즉, 두 공간에서의 대화 내용은 차이가 없고, 가족과 같은 공간에 있는지에 따라 대화 장소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일영 씨는 가족단톡방을 ‘가상 공간에 있는 거실’이라고 표현하였다.

저희 식구들 같은 경우는 거실에 모여서 얘기를 해요. (중략) 거실에 모여서 얘기할 때 하고, 카톡에서 얘기하는 게 차이는 없어요. 똑같은데, 이 시간대에는 다 같이 떨어져 있으니까 카톡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딱 질문하셨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그냥 우리 거실이다. 근데 가상 공간에 있는 거실이다. (정일영, 인터뷰 2)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가족구성원과 가상의 거실인 가족단톡방에서 소통하였다. 모든 참여자들은 배우자와 자녀로 구성된 형성가족 단톡방이 있었으며, 그 외의 가족단톡방은 연구참여자마다 차이가 있었다. 원가

족 단톡방은 부모와 형제자매로만 구성된 것도 있었지만, 본인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포함하기도 했다. 또, 부모를 제외하고 형제자매만, 혹은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단톡방을 구성하기도 했다. 배우자의 원가족 단톡방도 원가족 단톡방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로 구성된 단톡방도 있었지만,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일부 여성 참여자들은 시누나 올케와 같은 여성 친척으로만 구성된 단톡방이 있었다. 배우자, 자녀, 원가족, 배우자의 원가족 외에도 부모의 형제자매, 이종사촌, 조카 등 기타 친인척으로 구성된 가족단톡방이 있는 참여자도 있었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핵가족부터 확대가족, 친인척까지 다양한 구성원과 가족단톡방을 통해 소통하였다. 인터뷰 시점 기준 연구참여자가 포함된 가족단톡방의 종류와 그 구성원을 정리한 것은 <표 4-1>과 같다. 형성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톡방, 참여자의 원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톡방, 참여자의 배우자 원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톡방 순으로 정리하였다.

<표 4-1> 연구참여자별 가족단독방 구성원

이름 (가명)	단독방 번호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부모	본인 형제자매	본인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기타 친인척
배소정	1-1	●	●	●							
	1-2	●			●	●					
	1-3	●				●					
강혜경	2-1	●	●	●							
	2-2	●				●					
유혜지	3-1	●	●	●(첫째)							
	3-2	●	●		●(모)						
	3-3	●	●					●(시모)	●	●	
	3-4	●	●					●(시부)	●	●	
	3-5	●	●						●	●	
문소연	4-1	●	●	●							
	4-2	●	●			●	●				
	4-3	●					●				
최연서	5-1	●	●	●(둘째)							
	5-2	●				●					
차선희	6-1*	●	●	●(첫째)							●(며느리)
	6-2*	●	●	●(둘째)							
	6-3	●	●	●(둘째)							●(며느리)

이름 (가명)	단독방 번호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부모	본인 형제자매	본인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기타 친인척
	6-4*	●				●					
	6-5	●	●						●	●	
홍채아	7-1	●	●	●							
	7-2	●	●		●	●	●				
	7-3	●				●					
	7-4	●	●	●				●	●		
	7-5	●	●					●	●	●	●(인척)
전미경	8-1	●	●	●							
	8-2*	●			●	●					
	8-3	●							●		
한세훈	9-1	●	●	●							
	9-2	●	●	●	●	●					
	9-3	●	●	●				●			
정일영	10-1	●	●	●							
	10-2	●			●(모)	●					

●: 해당 단독방에 포함된 가족구성원. *: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족단독방

2. 일상과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의사결정하는

연구참여자들은 단톡방에서 가족들과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나누었다. 먼저, 가족에게 공지할 내용이 있을 때 단톡방을 사용하였다.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리면 모두가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생일, 결혼식 등 가족행사가 있을 때 시간과 장소를 공유하는 것부터 평소 식사 메뉴와 같은 사소한 내용까지 편리하게 공지하였다. 한세훈 씨는 장인, 장모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식사는 장모가 준비하였다. 식사시간이 가까워지면 장인, 장모, 아내, 아들이 있는 단톡방에 몇 시까지 집에 오라는 메시지가 오고 갔다.

학령기나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여성 참여자들은 수행평가, 체험학습 일정, 가정통신문 등 자녀의 학업과 관련된 공지를 단톡방에 올렸다. 알림장이나 학사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학교 애플리케이션이나 학부모 단톡방 등 자녀의 학업과 관련된 것들은 주로 어머니인 본인이 가입하고 있어서, 다른 가족구성원들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에 자녀와 남편이 관련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단톡방에 공유하였다. 특히,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여성 참여자들은 오늘의 날씨 등을 공지하여 자녀들을 돌보는 모습도 나타났다. 사무직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배소정 씨는 배우자와 두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만, 두 자녀가 등교하기 전에 회사로 출근하기 때문에 자녀의 등교를 직접 챙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단톡방에 ‘비 오니까 우산 잘 챙겨가고’, ‘추워졌으니 바람막이를 챙겨라’와 같이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녀가 별 탈 없이 등교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남편과 큰딸이 있는 단톡방을 보여준다. 참여자가 주로 문자나 사진을 보내고 있으며, 남편은 틈틈이 대답한다. 딸의 메시지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저희 큰딸이랑은 학교, 알림장[에 대해 단톡방에서 대화해요]. 이렇게 알림장을 학교에서 써줘요. 근데 그게 저만 볼 수 있어가지고. 큰애가

놓치는 건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써줘요. ‘수행평가 있다. 공부해라.’ ‘체험 학습 가는 거. 이날 가니까 알아뉘라.’ (중략) [단톡방에 올려두지 않으면] 저도 까먹어요. 이것저것 신경 너무 많이 쓰니까. 저도 까먹어. 여기 신랑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남편도 알라고. 제가 혹시 까먹으면 얘기해달라고. (유혜지, 인터뷰 1)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에게 정보를 편리하게 공유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족단톡방을 형성하기도 했다. 차선희 씨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지 않지만, 평소에 형제자매들과 자주 만났다.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전화도 편하게 하기 때문에, 대면으로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전화로 소통하였다. 그런 점에서 형제자매 단톡방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으나, 형제자매에게 공통으로 공유할 정보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단톡방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가족의 결혼식이 있을 때 단톡방을 활용하여 모든 형제자매에게 청첩장을 공유하거나 결혼식장 위치를 알려주었다.

[형제자매들과] 어떤 이슈가 있어. 그러면 단톡에다가 다 초대해가지고 얘기를 하긴 해. 근데 그건 일시적인 거고. 그냥 하도 자주 보니까. 전화 통화하고. 성질 급하면 바로 전화하고. (중략) 계속 운영되는 단톡방은 아니야. (중략) 친정에서 단톡에 공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누가 결혼한대. ‘결혼식장이 어디야?’ 이거야. 단톡에다가 다 올리는 거지. 단톡에 썩. 몇 월, 몇 시. 어디 예식장. 모바일 청첩장 온 거 이렇게 딱, 올려주고. ‘너 올 거니? 갈 거니?’ 뭐 이런 거. (차선희, 인터뷰 2)

공지 외에도 기사, 유머, 문구, 사진 등 가족에게 공유하고 싶은 것을 단톡방을 통해 한 번에 공유하였다. 자녀들이 알아두면 유익할 기사를 공유하거나, 본인이 보기에 재밌었던 글을 가족에게도 보여주는 것이다. 관련 내용에 관해 가족과 대화하는 것보다는 가족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가족 간 상호작용이 있다기보다는 일방향 소통이 주로 이루어졌다. 가족들이 떨어져 있을 때 서로에게 보여주

기 위해 단톡방에 올리기도 하지만, 가족들과 집에 있을 때도 가족에게 일일이 화면을 보여주는 것은 불편하여 단톡방에 올리기도 하였다. 즉, 가족의 위치와는 상관없이 가족단톡방을 가상의 알림판으로 사용하였다.

집 안에서도 [카톡] 할 때 있죠. (중략)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재밌는 거 보내주면, 내 핸드폰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단체방에 올려 놓고. 그런 용도가 보통 많아요. (정일영, 인터뷰 2)

가족에게 하는 공지나 정보공유는 주로 각 단톡방에서 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도하여 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냈다. 본인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형성가족 단톡방에서는 참여자나 참여자의 배우자가 주도했으며, 원가족이나 배우자의 원가족 단톡방에서는 부모 세대가 주도하였다.

큰애도 군복무하느라 다른 데 있고. 둘째도 다른 데 있고. 셋째는 집에 있지만 다 멀리 떨어져있어서. 거기[형성가족 단톡방]도 알려야 될 상황, ‘일주일 후에 엄마 생일이다,’ ‘몇 월 며칠날 아빠 생일이다, 잊지 말아라.’ 이런 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애들이 알았으면 하는 그런 신문 기사. 그런 거 올려주고. 나는 웃긴 거 있으면 막 올려주고. 그래서 주로 그런 용도로 써요. 근데 애들은 거기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올리지는 않고, 대답하고, 웃고, 이려고 말더라고요. (강혜경, 인터뷰 2)

우리 애 아빠가 처음에는 우리 가족들한테 필요한, 어떤 네이버 기사나 이런 거 있으면 보라고 몇 번 올렸었어. 그래서 그런 거로 [단톡방을] 시작해서 올렸나? ‘이거 한 번 봐라.’ 그렇게 해서 올려. (최연서, 인터뷰 2)

연구참여자들은 가족단톡방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위의 일방향으로 정보를 공유한 것과는 다르게, 가족과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때 텍스트 외에도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였다.

배우자 및 본인의 자녀로 구성된 형성가족 단톡방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화 주제는 평상시에 대면으로 나누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학교, 학원, 직장 등으로 가족들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 가족단톡방을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을 메시지로 보내면서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였다. 전미경 씨의 청소년기 자녀는 친구들과 놀고 있을 때,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보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단톡방에 공유하였다. 전미경 씨는 자녀가 친구들과 만나는 장소와 시간 등을 자녀에게 사전에 전해 들었지만, 자녀가 단톡방에 공유한 내용을 통해 자녀의 실시간 위치와 안전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참여자들은 과거의 가족사진을 단톡방에 올려 사진에 관한 추억을 이야기했다.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자녀들끼리 단톡방에서 장난을 치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을 올리기도 했다.

[단톡방을] 특별한 일이 있어서만 쓰는 것도 아니고요. 와이프랑 저랑 다 직장생활하고 있고. 낮 시간에 같이 못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주말에도 운동이다 뭐다 해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거기서 그냥 정말 시시덕거리는 그런 것들도 많고. 그냥 말장난하는 것도 많고. (핸드폰을 꺼내 형성가족 단톡방에 들어간다. 메시지뿐만 아니라 사진도 많이 올라와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사진 찍었던 것도 공유하고. 사진 찍은 것까지, 놀러갔을 때. 그리고 어디 가고 싶다, 라는 거. 이런 거 또 얘기하고. 근황 같은 경우,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단톡방에서 딸과 아들이 서로 카톡을 보내며 장난치고 있다.) 그리고 뜬금없이 막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그냥 장난칠 때도 있고. (정일영, 인터뷰 1)

원가족이나 배우자의 원가족 단톡방에서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소식을 주고받거나, 건강을 확인하거나, 생일을 축하하거나, 서로의 사진을 공유하는 것이 많았다. 자녀나 조카가 태어났을 때 사진을 단톡방에 올렸으며, 어린 자녀의 사진을 부모에게 공유하였다. 반대로, 부모가 여

행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을 단톡방에 올리기도 했다. 혹은 예쁜 꽃이나 마음에 드는 풍경을 발견했을 때 사진을 찍어 보여주었다. 또, 참여자들은 고령의 부모가 병원을 다녀왔을 때 이상은 없었는지 물어보면서 부모의 건강을 확인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족들을 만나기 어려웠기 때문에 단톡방을 통해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백신 맞았는지 확인하는 등 가족들의 건강을 확인하였다.

[단톡방에서] 부모님 집에 언제 방문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있으면 추석이니깐? 추석 전날 가는 게 좋을지, 추석 다음날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건강검진을 하셨으면 검진은 특별한 이상 없이 잘 받으셨는지. 이런 정도? 조카들의 영상이 올라올 때도 있고. 하다못해 화단에 꽃이 피면 꽃 사진을 올릴 때도 있고.
(배소정, 인터뷰 1)

[코로나19 때는] 만나는 게, 그때 좀 힘들었기 때문에. 친구들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카톡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아픈 데는 없니? 어디서 보니까 이런 비상약 찾아놔야 된다고 하더라’라든지, 뭐 그런 거.
(최연서, 인터뷰 2)

연구참여자들은 생일, 제사 등 가족행사를 개최할 장소나 시간을 정하거나, 가족 내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하는 등 가족 간의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도 단톡방을 활용하였다. 기혼자인 연구참여자들은 원가족과 따로 거주했기 때문에, 단톡방이 없던 과거에는 원가족과 연락하기 위해서 직접 만나거나, 한 명이 주도로 모든 가족에게 전화하여 의견을 통합해야 했다. 그러나 단톡방을 활용하면서 가족들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서로 메시지를 보내고 확인하면서 해당 사항을 논의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주로 같이 살지 않는 부모, 형제자매, 혹은 배우자의 원가족 등과 의사결정을 할 때 단톡방을 활용하였다.

3. 가족이라 편하지만, 가족이라 기대하고 조심스러운

연구참여자들은 가족 이외 사람들과의 단톡방과 비교할 때 가족단톡방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갈등이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직장동료나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메시지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가족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기에 텍스트로 인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었다.

[게임] 단톡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남기다가 의견이 안 맞으면 싸워요. (중략) 오히려 서로 몰이해 된 관계에서는 이모티콘이 싸움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나는 되게 좋은 의미로, 그냥 분위기를 캅다운(calm down) 시키려고 쓴 거를, 상대는 나를 비꼰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이해가 깊으면, 애가 왜 이런 걸 썼을까에 대해서 양해도 되고. 이해도 되고. 혹시 내가 오해했으면 그걸 다시 풀려는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아닌 사이에서는 단순 텍스트나 이모티콘으로 된 의사 표현이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거든요. (정일영, 인터뷰 1)

연구참여자들의 가족단톡방 중 메시지를 편하게 보내거나 답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단톡방이 있었다. 주로 배우자 및 자녀로 이루어진 형성가족 단톡방이나 본인의 부모 및 형제자매로 구성된 원가족 단톡방이 해당하였다. 형성가족이나 원가족은 혈연으로 이어져 있고 오랜 시간 함께 해왔기 때문에 답장에 대한 부담이 적었다. 또, 이 단톡방에서는 급하거나 의논해야 할 사항처럼 답장이 필요한 사항보다는, 답장이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공유나 간단하고 일상적인 대화가 주로 이루어졌다. 가족들이 메시지를 읽었을 때 읽음 표시가 사라지기 때문에 답장이 없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리고 가족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와 같이 가족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답장이 없으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했다.

[가족단톡방 답장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경우도 많고. 사실 안 하면 또 안 하나 보다, 하니까. (중략) 답장을 요하는 건데, 답을 안 하고 있으면 따로 전화하죠. (중략) [답장이 없어도] ‘1’ 없어도 읽은 건데요. 알아서 하겠죠. (배소정, 인터뷰 2)

동생들한테 올리는 사진이나 이런 건 되게 마음이 편해. 개네들은 내 동생이다 보니까. 솔직히 누가 사진 같은 거 보내주면 거기에다가 의무적으로 답을 달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답을 안 달기도 뭐 하고, 또 달자니 별로 나는 감흥이 없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 근데 동생들한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너무 편해. 답이 없어도 편해. (중략) 왜냐하면 애네들이 둘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 끝나면 언젠간 보겠지. 그럼 개네들이 봤다가, 바쁘면 그냥 보기만 하고 스쳤다가, 나중에 “언니 지난번 거기 어디 갔다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내가 부담이 없어. (최연서, 인터뷰 2)

반대로, 가족단톡방 중 답장하기를 기대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조심스러운 단톡방이 있었다. 먼저, 의사결정과 같이 가족의 답장이 필요할 때는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표정이나 목소리로 상대의 의견이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대면 소통과는 달리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메신저의 특성상, 단톡방의 참여자가 답장하지 않으면 그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가족이 참여하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 불만이 생겼다. 이런 모습은 의사결정이 자주 이루어지는 형제자매 단톡방에서 나타났다. 부모와 관련된 논의를 할 때 형제자매나 이들의 배우자가 참여할 것을 기대하였다. 장남이나 만며느리에 대해서는 특히 그랬고, 이들이 기대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불만을 갖게 되었다. 가족 간의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가족단톡방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첫째나 총무와 같이 평소에 대소사 등이 있을 때 주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들이 먼저 가족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을 때, 일부 가족들은 답을 하지 않는 것을 본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기분이 나쁘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가족이라 서로의 집안사정을 알고 있기에, 혹은 순위 형제자매이기에 이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역할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참여하지 않는 가족들의 의견은 배제되었다.

문소연 씨는 두 오빠와 그들의 배우자가 모두 포함된 단독방이 있었다. 평소에 가족행사가 있을 때 주도하는 사람은 둘째 오빠였다. 문소연 씨는 첫째 오빠 부부가 맏이이기 때문에 가족행사와 관련된 선택에 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라고 생각하였다. 둘째 오빠가 가족행사의 시간이나 장소 등을 가족단독방에서 논의할 때 첫째 오빠 부부는 답장을 자주 하지 않았는데, 문소연 씨는 이런 오빠의 행동이 책임감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첫째 오빠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을 알고 있고, 또 본인은 막내라 오빠의 가족에게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였다.

우리 큰 새언니 같은 경우는 [단독방에서] 답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듣기만 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런 거. 그런데 그거를 지금 나이가 50이 다 넘은 상황에서 그냥 그러고 마는 거지. 그리고 내 언니가 아니잖아. 우리 오빠의 부인인데, 내가 뭐라 그럴 거야. 그리고 내가 밑에 사람이잖아. 내가 위이면 “자네도 좀 올리지?” [그랬을텐데] (웃음) (문소연, 인터뷰 1)

차선희 씨는 본인 부부와 남편의 형제자매 부부 모두가 포함된 단독방이 있었다. 그 단독방은 제사나 생일과 같은 가족행사를 준비할 때 주로 사용하였다. 가족행사가 있을 때마다 공지하고 돈을 모으는 것이 불편했던 시누는 단독방을 나갔다. 본인의 부모를 챙기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시누를 보고 차선희 씨는 기분이 나빴지만, 시누가 금전적인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가족이니까 알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시누에게 따로 돈을 내라고 연락하거나, 나간 단독방에 초대하는 것이 조심스러웠

다. 이러한 이유로 시누는 그 가족단톡방에 다시 초대되지 않았는데, 가족단톡방에서 나간 만큼 시누에게 가족행사 때 필요한 돈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반대로 가족행사와 관련해서 시누의 의견도 배제되었다.

[시댁단톡방에] 며느리들까지 해갖고 싹 다 들어왔었는데. 맨날 공지에 뭐 한다고 돈 내라, 이러니까. 시누 중에 한 명이 나가버렸어. 기분 나쁘더라고. (중략) 재는 돈 내기 싫다는 거구나. (중략) 카톡이라는 게 없었을 때는 어찌 됐건 만나서 막 의논하고 했었을 거야. 무슨 일이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근데 단톡방에 짜리릭~ 올려놓고 거기서 의견 얘기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막 나와버리면, 이 사람은 거기에서 약간 배제돼. (중략) 본인이 싫어서 스스로 나간 거긴 한데. 우리 작은 단위의 공동체에서 “재는 그냥 빼.” 이렇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

(차선희, 인터뷰 1)

[시누가]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여유롭고 그러면, 굳이 남의 일도 아니고, 가족에 관련된, 특히 부모님들에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단톡방에서] 빠질 이유가 없지.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할 테고. 근데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이 다 수반되는 일이다 보니까, 안 끼고 싶어하고, 안 내고 싶어 하지. 미안한 마음이 있겠지만, (중략) 상황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경제적인 상황이 다른데. 똑같은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게, 상대방은 불편할 수가 있는 거지. 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근데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너무 잘 알잖아, 가족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늘 신경 써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부담스럽지. 편하게 얘기 못 하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연락을] 안 하게 되는 거야.

(차선희, 인터뷰 2)

둘째, 가족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은 단톡방에서 메시지를 보낼 때 조심하였다. 가족이 보면 불쾌할 수 있는 내용을 보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내용적 측면과 메시지를 작성할 때 띄어쓰기나 철자법과 같은 형식에 신경 쓰는 형식적 차원으로 나뉘볼 수 있었다.

가족이라고 해도 학업이나 진로 등 자녀 문제나 금전적인 사정 등 집안마다 차이가 있을 때, 해당 사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도록 조심하였다. 실수로라도 언급하게 되면 서로 불편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친구나 직장동료 등 다른 관계와는 달리 가족은 관계를 끊을 수 없고, 계속 만나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였다. 문소연 씨의 자녀와 첫째 오빠의 자녀는 1살 차이인데, 문소연 씨의 자녀는 모두 대학에 들어간 한편, 첫째 오빠의 자녀는 현재 수능을 세 번째 준비 중이었다. 자녀의 학업과 관련된 것은 가족 사이에서도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소연 씨는 첫째 오빠와 연락하는 것을 조심하였다.

우리 큰오빠네 애가 삼수를 해서 거기는 조심. 근데 작은오빠는 워낙 전화를 좀 [자주해] (중략) 근데 이게 애들이 끼어 있으니깐 조금 조심해야겠더라고. 우리 옛날에는 허구한 날 만나서 밥 먹고 놀고 그랬거든. 어렸을 때는. 점점 커가면서, 성적에 관련된 그게 되게 커. 그래서 서로가 조심해. 모여 살 때는, 어렸을 때 좋은데. 같이 사니까. 다 알잖아. 더구나 1년 차이인데. (중략) 내가 눈치가 보여서 조심해야 되니까, 전화 안 하게 돼. (문소연, 인터뷰 2)

연구참여자들은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로 구성된 단독방에서는 메시지를 보낼 때 조심하게 된다고 했다. 메시지의 철자법에 신경을 써야 하고, 예의 바르게 답장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며느리인 여성 참여자들은 시부모의 메시지에 답장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유혜지 씨는 시어머니가 있는 단독방에 메시지를 보낼 때 ‘혹시 내 말에 속상하실까?’ 한 번 더 생각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메시지를 보내도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보내기보다, 시누나 남편의 반응을 보고 분위기에 맞춰서 대답했다.

[시어머니가 있는 단독방에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결혼해서 생긴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말을 잘못하면, 어머님

이 혹시 속상해하시고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 그냥 엄마편은, ‘에이, 뭐 이렇게 얘기해도 엄마가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어머니니까 한 번 건너서 생각을 하게 돼요. ‘어머니 혹시 내 말에 혹시나 빠지실까? 속상하실까?’ 한 번 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보면 답이 늦어요. 남편이랑 시누랑 대답을 하면 그거 분위기에 맞춰서 대답을 하는 대답이 많아요. (유혜지, 인터뷰 1)

반면에 남성 참여자들 중에는 처가 단톡방이 별로 불편하지 않다는 경우도 있었다. 사위인 한세훈 씨는 장인, 장모가 있는 가족단톡방이 불편하지 않았다. ‘사위는 백년손님’이라는 한국 가족 문화가 있어서 조심할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장인어른, 장모가 있는 단톡방에 실수로 글을 올리거나, 어른들이 보낸 메시지에 꼭 답장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저는 솔직히 장인, 장모님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희 장모님이 저를 불편하시지. 사위는 백년손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방은 솔직히 불편한 거 별로 없어요. 제가 실수로 올린 글을 올려도 그냥 넘어가고요. (웃음) 우리 아들한테 거기다가 ‘시끄러워.’ 이런 얘기도 막 올리게 될 정도로, 그 방은 그래요. (중략) 끈대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 나이 또래는 꼭 답변을 달아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저 방 그런 것도 없어요. 아주 편한 방이에요. 우리 아내는 힘들 거예요. 그쪽 카톡방에서는. 머느리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머느리이기 때문에 되게 격식을 차리죠. 그 방 안에서는. (중략) [원가족 단톡방에서 아버지가] 성경 말씀 같은 올리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방에는 그냥 씹고. 우리 아내는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런 식으로 [답장해요]. (한세훈, 인터뷰 1)

제 2 절 각자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가족단톡방

1. 관계에 따라, 대화주제에 따라 조직되는

연구참여자 중에는 일부 가족구성원이 포함되지 않은 가족단톡방이 있었다. 포함되지 않은 가족구성원은 주로 불편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었다. 가족과 갈등이 있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반대로 편한 관계의 가족임에도 대화 주제에 따라 관련 없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 가족단톡방도 있었다.

우선, 특정한 사유로 사이가 좋지 않은 가족구성원이 있을 때 단톡방을 아예 형성하지 않거나, 혹은 불편한 가족구성원을 제외하고 단톡방을 형성하였다. 최연서 씨는 배우자의 원가족이 포함된 시가 단톡방이 따로 없었는데, 시누이와 시숙 간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이었다. 형편이 어려운 시누이를 시숙이 집을 구해주는 등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나, 계속 시누이가 불만을 표시하여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다. 최연서 씨는 모두가 친하지 않는 이상 단톡방을 만들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이는 가족단톡방이 가상의 공간이어도 구성원 모두가 모이는 공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었다.

사실 [시택] 단톡방은 없거든. 우리 여기 큰고모[시누이], 이 집이 이 분들[아주버님(시숙)네 가족]하고는 사이가 좋지가 않아. (웃음) [큰고모가] 장녀야. 그리고 [아주버님이] 둘째고. 근데 [큰고모가] 장녀 역할을 살짝 못 하셔. 그리고 이렇게 4형제가 있잖아. [큰고모가] 제일 힘들게 살아. 제일 요즘 형편이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못 사는 건 아닌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제일 이렇게 좀 어려워. 근데 현재 자기 집이 있는 것도... 여기 우리 아주버님이 집을 다 이렇게 마련해 주셔 가지고 살고 계신단 말이야. 근데 항상 우리 고모가 불만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뭐 이렇게 불만이 많냐고 그러면서 그 관계가 조금 오랫동안 지금 지속되는 상황이라 단톡방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웃음) (중략) 이게

집안에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렇게 단독의 개념은 솔직히 친하지 않으면 [만들기가 어려워]... 아니면 아예 서로 간에 모르던가.

(최연서, 인터뷰 2)

불편한 가족구성원을 제외하고 단독방을 구성한 경우에는 다른 가족구성원의 동의가 있었다. 강혜경 씨는 본인의 어머니를 제외하고 형제자매와만 단독방을 구성하였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고, 어머니는 일을 시키는 존재로 생각했다. 어머니의 연락은 일거리로만 느껴졌다. 그래서 어머니와 연락할 때도 부탁한 용무에 관해서만 대화를 할 뿐, 가벼운 수다나 농담과 같은 일상적인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 또, 강혜경 씨의 어머니는 자녀들이 모두 결혼하고 독립한 지금까지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다른 형제자매들도 어머니를 가족단독방에 초대하면 불편할 것이라 판단하여 어머니를 포함한 단독방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

[엄마랑은] 개인방만 있어요. 엄마랑만. (중략) 우리 엄마가 자식들을 아직도 내 맘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중략) 거짓말 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엄마 마음대로 ‘너희 둘이 이렇게 하고. 너는 안하고.’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는 특들을 [형제자매들도] 다 꺼려해요. (중략) 큰 소리가 나오고, ‘엄마는 왜 그래?’ 이러니까. 꺼려해요. (강혜경, 인터뷰 1)

두 가족구성원 간 사이가 좋지 않을 때, 두 가족구성원을 분리하여 별도의 단독방을 형성하기도 했다. 유혜지 씨는 시댁단독방이 두 개 있었는데, 시부모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이었다. 한 단독방에는 시어머니가, 다른 단독방에는 시아버지가 있었고, 나머지 인물인 유혜지 씨 부부와 시누이 부부는 두 개의 단독방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두 단독방에서 하는 대화의 내용이 달랐고, 그 내용은 서로 다른 단독방에 공유되지 않았다. 유혜지 씨는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기에 자녀를 돌보지

못할 때 시어머니가 있는 단톡방에서 도움을 부탁하는 내용이 많았다. 시아버지가 있는 단톡방에서는 시아버지의 사업, 주말 식사 모임 등 시아버지와 관련된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 유혜지 씨는 가족단톡방이 따로 생기기 전까지는 시부모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가족단톡방이 따로 생기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음을 깨달았다. 즉, 가족단톡방에 포함되는 구성원은 가족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끼리] 사이가 엄청 좋구나 했는데, 점점 보니까 서로 대화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단톡방이 이렇게 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가 많이 안 좋으시구나. 단톡방에 누가 있고, 없고가 그 사람의 관계에도 참... 말을 안 해도 보이게 하더라고요. (유혜지, 인터뷰 1)

연구참여자들은 대화 주제에 따라 가족단톡방의 구성원이 달라졌고, 이에 편한 관계임에도 가족단톡방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기존에 있던 가족단톡방 대신 해당 주제에 관련된 사람만 모아서 별도의 단톡방을 구성하였다. 특정 가족구성원이 알 필요가 없었거나, 모두가 있는 가족단톡방에서 논의하면 주제와 관련 없는 가족구성원이 불편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부모와 형제자매가 모두 포함된 원가족 단톡방과는 별도로 형제자매 단톡방이 따로 있는 참여자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였다. 배소정 씨는 부모의 생신 전에 부모와 형제자매가 모두 있는 단톡방에서 가족과 언제, 어디서 식사할지 의논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생신 선물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식사 후 정산과 같은 내용은 부모가 알 필요가 없거나, 알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 단톡방에서 따로 논의하였다. 차선희 씨는 두 아들 중 첫째의 부부와 본인 부부만 포함한 단톡방이 있었다. 외국에서 사는 첫째 아들은 최근 이사할 집을 구매할 때 부모에게 조언을 얻기 위해 참여자 부부

와 본인의 아내가 있는 가족단독방을 사용했다. 이 사안과 관련 없는 둘째 아들은 단독방에 초대하지 않은 것이었다.

[원가족 단독방에서] 아빠 생신 언젠데 이번에는 어디서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중략) 이런 식의 대화인 거죠. (중략) 뭐 먹고 싶은지 정하는 정도? 그리고 선물 뭐 필요한 게 있으신지. 그런 거 여쭙보는 정도. (중략) [부모님이] ‘너네들이 의논해서 정해.’ 이렇게 말을 하면, 길게 막 ‘어디가 괜찮나?’ 이런 얘기하는 거까지 얘기하는 거는 [부모님이] 괜히 번거로우실테니. [형제자매 단독방에서] 얘기를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중략) 생일 파티하고 돈 나눌 땐 따로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거죠. (웃음) ‘돈이 얼마나 들었지?’ 그러면 ‘내가 얼마를 낼 테니 나머지는 너희들이 내라.’ 그런 얘기는 부모님하고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면, ‘너는 선물 뭐 샀니?’ ‘아,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샀는데 아마 다른 거 필요하신 거 같애.’ (배소정, 인터뷰 1)

2. 모두가 함께 모일 필요는 없는

가족 간의 갈등이 없어도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 등 인척과의 관계는 형성가족이나 원가족과의 관계보다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가족 단독방에 배우자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초대하는 것에 대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의견이 달랐다. 이는 불편하지 않은, 편안한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배소정 씨의 경우 원가족 단독방에 부모와 형제자매만 있을 뿐, 본인이나 형제자매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는 포함되지 않았다. 배소정 씨는 가족단독방은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모와 형제자매는 ‘서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함께 자란 사람들’이었지만,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는 ‘편한 것보다 불편한 것이 더 많은 관계’였다. 이런 점에서 배우자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단독방에 초대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불편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배소정 씨는 혈연으로 이어진 원가족과 형성가족까지를 불편하지 않은 가족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성가족이나 원가족이 아닌] 그 외의 사람들은 [가족단톡방에 초대받는 것이] 불편할까봐. 그들이 불편할 거 같아요. [가족단톡방에] 꺼달라고 하면 안 꺼주는 건 아니겠지만. 안 궁금한데 자꾸... 하다못해 가끔 저도 우리 조카가 피아노를 잘 치는 게 그렇게까지 난 궁금하지 않은데.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는 그나마 내 조카인데. 우리 남편이 만약에 그 안에 있으면 ‘애들이 다 그렇게 크지, 뭐가 궁금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다리 건너면 보통 사람의 관계가, 딱 그 마음의 거리감이 다른 거라서.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느 정도 서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같이 자라난 사람들인 거잖아요. (웃음) 거기서 또 날 빼줘, 라고 하면 또 빠지겠죠. 근데 어느 정도 불편하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단톡방인 거고. 그게 아니라 결혼으로 해서 맺어진 관계인 경우에는 편한 것보다는 불편한 게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애초에 불편함을 디폴트 삼지는 않는 거죠. (배소정, 인터뷰 1)

반면, 홍채아 씨는 원가족 단톡방에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모두 포함되었다. 올케와 형부도 ‘가족이니까’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홍채아 씨는 가족의 번호를 스마트폰 주소록에 저장할 때 이름 옆에 하트를 붙였는데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조카, 사촌 등의 관계에도 하트를 붙였다. 즉, 홍채아 씨는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 외에도 인척관계까지 편안한 가족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을 보여주며) 하트는 가족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트 해주지 않아요. 하트는 다 우리 친가, 시댁, 우리 아기들. 다른 사람들은 저장할 때 하트는 절대 해주지 않고. 왜 하냐고 물어보면, 선생님, 가족이니깐요. 이렇게 저장했어요. (홍채아, 인터뷰 1)

본인 자녀의 배우자를 가족단독방에 초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연구 참여자마다 달랐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는 성인자녀가 배우자를 포함하여 단독방을 형성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본인이 직접 성인자녀의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단독방을 형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시부모 혹은 장인, 장모가 며느리나 사위를 포함한 단독방을 만드는 것은 자녀 부부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여성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이러한 견해는 본인의 고부관계 경험을 토대로 형성되었다. 여성 연구참여자의 시부모는 주로 가부장적 사고를 지녔다. 이러한 사고에 따라 시부모, 특히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참여자에게 행동을 명령하고, 며느리보다 자기의 아들을 더 챙기기를 강요하다보니, 며느리인 참여자는 시부모라는 존재가 힘들고 부담스러웠다. 이러한 관계를 본인의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도 투영하였다. 예를 들어, 문소연 씨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본인의 말을 강요하는 시어머니에게 불만과 갈등이 쌓였고, 시어머니와 연락하는 것이 ‘가슴이 벌렁거릴 만큼’ 부담스럽고 어려웠다. 본인이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두 아들이 결혼하여 며느리가 생겼을 때 가족단독방에 초대한다면 며느리도 불편할 것이라 생각하고 며느리를 단독방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 시어머니는 ‘할까?’가 아니고 ‘해’. 그러니까는 유아독존인 거 있잖아. 그냥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셔야 되는. 그런 분의 밑에 있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단독방을] 안 하고 싶을 것 같아. (중략) 내 아들은 나를 ‘우리 엄마니까.’ 하고 이해하겠지만. 그들은 남의 딸이고, 나는 남의 엄마잖아. (중략) 정말 뭐가 궁금하면 통화해서 “어떻게 지내니?” [하면 되지] 카톡으로 허구한 날, 며느리랑? 나는 너무 불편할 것 같아. 왜 며느리랑 굳이. 그리고 며느리도 남이기 때문에 좋을 때는 그렇지. 그러다가 요만한 걸로 틀어져 버리면은 아들도 불편해지고, 가운데 끼어 있는. 나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문소연, 인터뷰 2)

그러나 며느리나 사위도 가족단독방에 초대할 것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이는 누구까지 편안한 가족으로 보는지의 범위도 중요하지만, 배우자의 부모, 특히 시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달라졌다. 홍채아 씨는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았다. 시아버지는 ‘표현을 잘 하고’, 시어머니는 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홍채아 씨의 시가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지니고 있어, 며느리도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 시가와 가까이 거주하고 있어서 주말에 시어머니의 요리가 먹고 싶으면 연락해서 편하게 갈 수 있었다. 또, 어린 자녀를 키울 때 도움이 필요하면 시가에 편하게 요청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시부모와 편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은 홍채아 씨는 시부모에게 도움을 받은 만큼 며느리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도울 생각이었고, 며느리도 가족이 되었기에 기존에 있던 가족단톡방에 초대할 것이라고 하였다.

(연구자: 나중에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생긴다면 그들을 가족단톡방에 초대할 건가요?) 그럼요. 그녀들이 싫을지언정. (웃음) 전 손주도 봐줄 거예요, 봐달라고 그러면. (중략) 그럼요. 가족인데. (중략)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그때도 많이 정정하시고 그러면... [며느리가] 그 방에 초대되는 거죠. 그 방에도 초대가 되고. 우리 4인에 며느리가 왔으면, 그 방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초대할 것 같아요. (홍채아, 인터뷰 2)

친인척이 가족단톡방에 모두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나 친인척의 압박으로 단톡방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다. 단톡방은 한 사람이 주도하여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여 형성되는데, 가족단톡방은 단톡방에 들어올 것인지 모든 구성원에게 동의받지 않고 갑작스럽게 형성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초대된 구성원들은 의도치 않게 어색하거나 불편한 관계의 가족구성원과 같은 단톡방에 속하게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단톡방에 계속 있었지만, 결국 그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나가는 일이 있었다.

강혜경 씨는 9남매인 아버지의 형제자매와 이들의 자녀 등 수많은 가족이 포함된 친척단톡방에 갑자기 초대되었다. 단톡방에서는 서로 잘 모

르는 가족도 있었을뿐더러, 강혜경 씨와 관련 없는 수많은 메시지가 오고 갔다. 특히, 아버지의 형제자매들이 있기에 그들이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정성 들여 답장해야 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형제자매들이 가족 모두가 단톡방에 있기를 위하여 단톡방을 나가지 않았으나, 결국 참지 못한 강혜경 씨는 단톡방을 나왔다. 이때 강혜경 씨는 불편한 가족단톡방과 원치 않은 메시지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후련했다.

친척톡은 자기 집안 자랑의 도가니예요. ‘우리 손자 누가 이번에 무슨 상을 받아왔다.’ 그러면서 상을 딱 올려요. 그러면 온갖 이모티콘, ‘축하한다.’ 그런 걸 막 올려줘야 해요. 안 해주면 안 돼. 그건 친정엄마 특하고는 틀려요. 친정엄마 톡은 내가 씹어도 되지만, 친척,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이런 분들 톡은 내가 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만 올랐다 그러면 이모티콘으로라도 보내고. 또, ‘어디가 아픈데’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서운해 하니까 엄마보다 더 정성스럽게,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요? 그 증상은 뭐 이러니까. 이러니까 어느 병원, 어디 무슨 과를 가는데 낫겠는데요.’ 하니까. 우리 아버지 친척이 9남매였거든요? 9남매의 자식들도 다 들어와있고.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다 들어와있고 그러니까. 너무 톡들이 많아서, 너무 질려서 나와버렸어요. (중략) [단톡방에 나오고 나서] 후련했어. (웃음) (강혜경, 인터뷰 1)

마지막으로, 가족단톡방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계속 초대되는 경우도 있었다. 강혜경 씨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친척단톡방에 초대되었다. 자신과 관련이 없는 메시지가 쌓이자 결국 강혜경 씨는 단톡방에서 나왔으나, 가족들이 모두 단톡방에 있기를 바란 친척들은 강혜경 씨를 계속 초대하였다. 강혜경 씨는 나갈 때 ‘둘째가 고삼이라 너무 머리가 아파요’, ‘속상한 일이 많아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서야 다시 초대되지 않을 수 있었다. 강혜경 씨가 생각하는 편안한 가족의 범위와 친척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에 차이가 있었고, 이러한 차이는 가족 간의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이어졌다.

3. 스스로 나갈 수 있지만 돌아오기는 쉽지 않은

연구참여자들은 가족과 갈등이 생기면서 가족단독방에 있던 구성원이 단독방을 나가는 경험을 했다.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완전히 단절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가상의 거실인 가족단독방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었다. 강혜경 씨는 형제자매들만 있는 단독방에서 부모와 관련된 사안을 주로 논의하였다. 그러다 동생이 어머니와 싸우게 되었는데, 화가 난 동생이 단독방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는 단독방을 나왔다. 그 단독방에는 어머니가 있지 않음에도 어머니와 관련된 대화가 오고 가는 단독방이기 때문에 불편했던 것이었다. 최연서 씨는 형제자매 가족들과 다 같이 여행을 가기 위해 가족단독방을 만든 적이 있었다. 그러나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연서 씨 남편의 독단적인 성격으로 남편과 형제자매들과 갈등이 발생하여 서로 감정이 상했다. 남편과 형제자매 사이에 있던 최연서 씨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결국 단독방을 나오게 되었다.

예전에 단독방이 있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을 [포함]해서 요렇게, 요렇게[모든 형제자매 부부를 포함해서] 다 하나 만든 적이 있었어. 여행가는 것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 여행이 흐지부지됐거든. (중략) 서로 의견이 안 맞고. 그때 우리 애 아빠가 성격이 좀 독단적인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견 조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동생들이 ‘형부는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해?’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결국은 그 여행도 파토 났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단독방을 가지고 있기 싫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제일 일빠따로 나왔어. (웃음) (최연서, 인터뷰 2)

가족단독방에서 나간 구성원을 다시 초대하기 위해서는 단독방에 남아 있는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하였다. 메신저의 특성상 단독방에서 나가면 누군가가 나갔음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단독방에서 나갔다는

사실을 단톡방의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단톡방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초대받아야 한다. 즉, 단톡방을 나간 가족구성원이 단톡방에 다시 들어오고 싶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다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가족들이 초대해줘서 다시 단톡방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지만, 가족들이 초대해주지 않아서 단톡방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강혜경 씨의 동생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모님과 의 갈등으로 형제자매 단톡방에서 나간 적이 있었다. 첫째 언니가 그것을 보고 연락이 올 때까지 초대하지 말라고 하여 몇 달 동안 동생이 단톡방에 초대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와 갈등이 해소되었고, 형제자매와 다 같이 논의할 일도 있었기 때문에 동생은 다른 형제자매에게 초대해달라고 부탁하여 다시 들어올 수 있었다.

[막내동생이] 엄마 때문에 화가 막 나서, 엄마가 이랬네, 저랬네. 나한테 이래저래했네. 장문의 글을 올리더니, 우리 형제방에서 똑 나가더라고. ‘아니, 왜 나갔어? 왜 나갔어?’ ‘나도 몰라.’ ‘[막내동생] 부를까?’ 이래요. 언니가 ‘넵뉘. 우리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왜 우리 방에 화풀이야, 애는?’ 불러달라고 할 때까지 넵두라고. 그래서 진짜 한동안 몇 달 개 못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자기 바로 위에 언니한테 ‘언니 나 좀 넣어줘.’ (웃음) ‘그때 뭣 모르고 그냥 나왔는데 나 좀 넣어줘.’ 불편하죠, 자기도. 알려야 될 거는 개인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나 좀 넣어줘. 그래가지고. ‘그래! 너가 그냥 나가서 넣어달라고 안 해서 안 넣어준 거지. 넣어줘라.’ 그랬더니 들어와서 돈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웃음) (강혜경, 인터뷰 1)

반대로 최연서 씨의 아들은 가족의 동의를 받지 못해 가족단톡방에 다시 못 들어갔다. 최연서 씨는 본인 부부와 아들, 딸로 구성된 형성가족 단톡방이 있었다. 회사 근처에서 자취하는 딸은 단톡방에 친구, 직장 등 자신의 일상에 관해 일일이 공유하였다. 아들과 딸은 전부터 대면대면한 사이였는데, 자신과 관련 없는 메시지가 계속 쌓이는 것이 싫었던 아들

은 결국 단톡방에서 나갔다. 아들은 단톡방을 나올 때 귀찮으니 개인적으로 연락하라고 하며 나왔고, 아들의 행동에 화가 난 남편은 아들을 초대하지 말라고 하였다. 아들과 딸은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아서, 가족단톡방으로라도 서로의 근황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고 싶었던 최연서 씨는 아들을 다시 초대하고 싶어 남편을 설득해봤지만, 남편이 계속 반대하는 탓에 초대할 수가 없었다. 즉, 가족단톡방에 초대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였다.

[아들이 단톡방에 초대해달라는 말은] 절대 안 해. 자존심도 엄청 세고. 지가 나갔으니까. 일방적으로 그 일, 나간 거는 그때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지가 나간 거야. 그리고 막 단톡 같은 거, 막 이렇게, 딸내미는 막 이렇게 보내잖아. 그러면은 어느 날 봤는데 막 열 몇 개가 와 있고 이러니까, 애는 그런 게 짜증 나 가지고. ‘왜 쓸데없는 얘기들을 자꾸 여기다가 보내는 거지?’ 그러더니 그냥 어느 날 지가 딱 나가버리고. 우리 애 아빠가 다시는 초대를 못 하게 해.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 그게 조금 안타까워. (최연서, 인터뷰 2)

제 3 절 유용하지만,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가족단톡방

1. 감정을 배제하고 일상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메시지를 여러 사람에게 한 번에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단톡방이 유용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단톡방을 통해 가족들과 만나지 않아도 서로에 대한 근황과 정보를 빠르고,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원가족이나 배우자의 원가족은 가까이 산다고 해도 각자의 삶이 있으므로 시간을 맞춰서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서로 의도해서 전화하거나 만나지 않는 이상 같이 살지 않는 가족들의 일상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가족들의 근황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매일같이 대화하고, 떨어져 있을 때 대화하고. 떨어져 있었을 때도 떨어져 있는 거 같지 않은 것처럼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또, 우리 부모님하고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저는 20km 가까이 떨어져 있지만, 제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단톡방으로] 보여준다거나. 우리 아버지는 당신이 만지는 컴퓨터에 문제가 있었을 때, 카톡을 통해서 ‘연락 바람’ 문자 보내시면서 끈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한세훈, 인터뷰 2)

[카톡을 써서] 대화하니까, 소통이 되는데. (중략) [가족들과] 안 보고 [소통할 수 있는]. [가족들이랑] 만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막 서로 바쁘니까. 날짜 맞추기도 힘들고. 시간 내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중략) [가족단톡방이 없었다면] 이렇게 쉽게 빨리. 정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화로든 어떻게든 했긴 했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빠르게 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써보니까. 쉽고. 그냥 카카오톡 하나만 깔면 누구든 방 초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쉬우면서 빠르게. (유혜지, 인터뷰 2)

가족단톡방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구성원 모두가 단톡방에 올라온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즉, 가족구성원과 직접 대화하지 않더라도, 그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과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를 보며 그 구성원이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홍채아 씨는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어려운 형부와 전화는 몇 번 해봤지만, 개인톡으로 연락해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부모와 형제자매 부부가 있는 친정단톡방에서 형부가 보낸 메시지를 보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다.

형부는 어려워요. (중략) 여자 남자의 차이일 수도 있고. 아랫사람과 윗사람일 수도 있고. 형부는 나이 차이가 저랑 열 살이 넘거든요. (중략) 형부랑은 전화 통화는 해도 메시지를 보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카톡, 문자. (중략) 근데 얼마 전에 아기 태어났을 때 (중략) 형부는 거의 주마다 내려가는 거거든요. 언니랑 형부는 아기가 거기 있으니깐. 형부가 그 마을 위에 올라가서 산책 겸 사진 찍었나 봐요. 그럼 형부가 [가족단톡방에] 사진 올리기도 하고. (홍채아, 인터뷰 2)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어색하거나, 불편한 관계의 가족과 가족단톡방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했다. 이는 목소리나 표정으로 감정이 드러날 수 있는 전화나 면대면 대화와는 다르게 텍스트 기반인 메신저는 감정을 숨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전화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전화할 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에 어색하거나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전화할 때는 부담스러웠다. 또, 목소리나 말투에 상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해야 했다. 그러나 메신저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감정이 투영되지 않으며, 용건만 딱 전달하고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문소연 씨는 본인과 올케들만 있는 가족단톡방이 있었다. 서로 가까이 살아서 자녀가 어렸을 적에는 올케들과 친하게 지냈었다. 그러나 문소연

씨의 자녀들은 무탈하게 대학에 입학한 반면, 올케의 자녀는 수능을 계속 준비하자 문소연 씨는 올케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 이때 올케에게 전화하면 용건이 아닌 다른 이야기도 나누면서 실수할 수 있기에, 가족단톡방을 통해서 간단하게 용건만 전달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고 그럴 때는, 새언니들한테 전화하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 (중략) [단톡방으로는 새언니들한테] 딱 용건만, 딱딱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문소연, 인터뷰 2)

차선희 씨는 부모와 시부모가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아서, 무조건 전화로 연락을 드려야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인척관계이기 때문에 친정어머니에 비해 전화하는 것이 편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어머니와는 ‘가급적 필요할 때만’ 연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메신저는 상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고 연락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메신저를 사용할 수 있다면 더 편하게 안부를 물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이 카톡을 사용할 수 있다면] 소통이 좀 부드럽고, 더 자주 소통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엄마가 됐든... 우리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 안부 인사를 하는 게, 무조건 전화를 해야 돼. 가서 보든가. (중략) 근데 마음이 화창하게 좋아가지고 전화하게 되지는 않잖아. 그런데 카톡은 그게 가능해. 카톡으로는 그럴 수 있어. ‘아유,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날씨도 너무 좋은데~’ (중략) 내 약간의 불편함? 껄끄러움? 이런 거를 다 그냥 버려두고, 문자로는 그게 가능해. 문자의 장점인 것 같아. 카톡의 장점인 거지. (차선희, 인터뷰 2)

2. 글자라 번거롭고, 모두가 실시간으로 보니 조심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전화나 면대면 대화보다 메신저가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메신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며, 화면을 보고 글자를 직접 쳐야 하기 때문에 목소리만 내면 되는 대화나 통화보다 불편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참여자의 부모 세대가 가족단톡방에 포함하지 못했다. 참여자의 부모세대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기계에 대한 적응이 어려웠고, 시력이 나빠지면서 스마트폰에 작은 글자 크기의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혹은 일부 참여자들은 부모가 기술을 신뢰하지 않아서 메신저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로 참여자의 아버지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

[아버지는] 전화를 많이 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애들한테도 전화를 많이 하시고. 직접 통화하시는. [메시지를] 치고 있는 거 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타이핑하고 이런 거. (중략) 본인이 불편해하세요. 카톡 같은 거 보내면 전화하라고 그래요. (중략) 어머니는 [카톡] 잘 쓰시죠.
(정일영, 인터뷰 1)

연구참여자들은 부모 세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족단톡방을 편하게 사용하고 있었지만, 불편한 부분도 있었다. 이들은 메시지를 일일이 입력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오타자나 띄어쓰기의 오류가 없는지 검토하고 보내야 해서 불편하다고 하였다. 나이가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짧게 메시지를 쓰는 자녀 세대에 비해 문장 형식으로 길게 작성하는 편이었다. 또, 가족들과 전화로 소통하는 것이 편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메신저를 통해 소통하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과 메신저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메신저를 보내는 행동을 하며) 이런 거 막 하는 걸 안 좋아해서. 그리고 메신저가 오면 좀 바로 이렇게 몇 개는 치지만, 아니면 바로 통화로 해가지고 해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중략) (타자를 치는 듯 손을 움직이며) 이렇게 치고 있는 게, 아무래도 타자도 느리고, 치는 게 빠르지가 않은... 그러니까 붙들고 이렇게 막 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몇 자 치고 있느니 빨리 전화를 해가지고 한마디로

딱 끝내는 게, 그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이고 편한 거죠.

(전미경, 인터뷰 1)

학교 초등학교 엄마들이 엄마들끼리 공유한 단톡 때문에 스마트폰 바꿨다는 거 아니야, 옛날에. (중략) 스마트폰 초기에. 선생님이 공지를 거기다 해. 그다음에 학부모회장이 거기다 해.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바꿨었어, 초기에. (중략) 그 정도. 안 그러면 내가 못 들어. 뭘 내용을. 나는 회사 얼마 전까지 다녔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전체 대표님이 어떤 공지하거나, 뭘 자료를 내려거나, 이런 공지를 단톡방에다 해요. 급한 거. 만약에 스마트폰이 아니고, 나 혼자 2G폰이면 일을 못해. 어떡할 거야, 나만 안 되면.

(차선희, 인터뷰 1)

단톡방에 올라온 메시지를 구성원 모두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별도의 가족단톡방에서 대화하거나 개인톡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는 참여자가 보내는 메시지를 특정 인물은 보지 않았으면 했거나, 혹은 메시지가 관련 없는 가족들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먼저, 특정 인물이 메시지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는 다른 가족이 알기에는 복잡하고 사적인 이야기거나, 혹은 해당 내용을 알게 된다면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배우자와 소통할 때 가족단톡방보다는 개인톡이나 전화, 면대면 대화와 같은 일대일 방식의 소통 채널을 선택하였다 생활비, 재무관리, 세금 등 금전적인 내용, 직장에서의 고충 등 힘들었던 일, 자녀와 관련된 대화 등을 나눴다. 금전적인 내용이나 직장에서의 고충 등과 관련된 내용은 같이 살지 않는 원가족이나 배우자 원가족과 같이 다른 가족들이 알 필요가 없는 사적인 내용이며, 자녀와 관련된 이야기는 당사자 앞에서 하기에는 자녀가 불편하기 때문이었다. 한세훈 씨는 메신저를 활용하기보다는 아이가 자러 간 이후와 아내와 대면으로 이야기했다.

에 있을 때 지 얘기 잘 못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 (중략)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애 앞에서 자기가 뭐 했다. 뭐 했다, 하면 되게 쑥스러워해요. 아직까지는. (중략) 아빠가 자기 앞에서 얘기할 때는 표정에서 그냥 쑥스러워하고 지 방으로 들어가는 게 보여가지고. “우리 [아들] 있을 때는 하지 말자. [아들] 관련된 얘기는 [아들] 자면 그때 하자.”
(한세훈, 인터뷰 2)

또, 가족끼리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 흉을 보는 등 다른 가족이 알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화도 개인톡으로 이루어졌다. 강혜경 씨는 형제자매 단톡방이 있지만, 형제자매에 대해 흉볼 때는 다른 가족과 개인적으로 연락하였다.

우리 형제자매 특이 하나 있고. (중략) 1:1 특은 언제든 열 수 있으니까. 민감한 이야기, 그런 건 1:1로 하고. 전체 다 해야 될 거 같은 건 전체로 다 하고. [민감한 이야기는] 흉보는 거. (웃음) 흉보는 거. ‘[동생]이 세상에 이런 말을 했다?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거. (강혜경, 인터뷰 1)

참여자가 보내는 메시지가 해당 없는 가족들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단톡방에서 메시지를 보낼 때 조심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가족 일부가 외국에 있어 활동하는 시간대가 한국과 다를 때, 그 가족이 메신저 알람 소리에 깨거나 하는 등 생활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조심하였다. 문소연 씨는 첫째 아들이 유학으로 인해 외국에서 생활하게 되자 모두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가족 단톡방을 덜 사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첫째 아들이 한국에 있을 때는 둘째 아들이 언제 귀가할 것인지와 같은 둘째 아들과 관련된 메시지를 단톡방에 올려도 괜찮았지만, 첫째 아들이 외국에 간 뒤에는 둘째 아들과 관련된 메시지는 둘째 아들에게 개인적으로 했다.

[첫째]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둘째], 너 몇 시에 들어와?’ 그런 걸 같이

있는 방에다 올렸는데. [첫째]가 [유학] 가고 나서부터는 거기다가 좀 그렇잖아. 왜냐면은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그 소리에 개가 깰 수도 있고. 그래서 [첫째]가 미국 가고 나서부터는 내가 [둘째]한테 개인적으로 ‘너 언제 들어와?’ 하지. 근데 우리 셋이 외식을 하거나, ‘오늘 이거 먹었다. 이거 먹는다. 우리 어디 간다. 여행 간다.’ 그런 건 올리지, [첫째]한테. 근데 [둘째]의 뭐 그런 거는 ‘너 몇 시에 들어올 거야?’ ‘어디?’ ‘엄마 잔다’ ‘몇 시까지 들어와라’ 뭐 이런 거를 [첫째]가 가고 나서부터는 거기다 안 하고. (문소연, 인터뷰 2)

3. 전화와 만남을 대체할 수는 없는

연구참여자들은 가족단톡방뿐만 아니라 면대면 만남, 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과 소통하였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는 면대면 대화나 전화로 주로 소통하였다. 디지털 이민자 세대인 참여자들은 면대면으로 대화하거나 전화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했다. 친밀한 관계의 가족과는 면대면 대화나 전화와 같이 감정이 드러나는 방식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으며, 이러한 소통방식으로 오히려 가족과 깊고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게다가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배우자와 자녀와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와 같이 집에 있을 때에는 가족단톡방을 사용할 일이 적었다. 급한 업무가 아닌 이상 집에서 대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고,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동시적인 특성을 지닌 전화로 논의하였다. 그런 점에서 인터뷰 시점에 카카오톡 데이터센터의 화재로 오류가 발생하여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도 참여자들은 면대면 대화나 전화로 가족과 소통하였으며,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큰 불편을 느끼지 않았다.

같이 있을 때는 가족끼리의 카톡이 굳이 필요 없잖아. (중략) [둘째 아들]은 매일 보니까. 애네 아빠도 매일 보니까. 그리고 나는 뭐 일이 생기면 ‘친정엄마나 누가 전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친정 부모님한테 무

슨 일이 생기면 오빠들이, 한 사람이라도 먼저 전화가 올 것이고. 아니면 엄마가 나한테 전화를 할 것이고. (문소연, 인터뷰 2)

[카카오톡 데이터센터 화재가 토요일에 일어났는데] 토요일에는 어차피 [가족끼리] 계속 같이 있으니까 별 영향이 없었어요. 가족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굳이. 저희는 토요일 날 카톡 빈도는 많이 떨어져요. 애가 밖에서 놀지 않는 이상은. (중략) 아내하고는 전화로 바로, 문자 말고 전화로 다 했던 것 같아요. (한세훈, 인터뷰 2)

또, 연구참여자들은 가족과 단톡방을 통해 편리하게 소통하기는 했지만, 단톡방의 불편한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화와 함께 활용하기도 했다. 가족이라 해도 메시지를 통해 대화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거나, 참여자가 생각한 의도대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전화는 두 사람이 모두 전화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어야 한다. 모두가 참여하는 단톡방과는 달리 전화는 1:1이라는 특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일상적인 내용이거나 짧은 대화를 할 때는 가족단톡방을 활용했지만, 급한 일이 있거나 긴 대화를 해야 할 때는 전화를 활용하였다.

특히, 가족행사처럼 가족과 의논할 일이 있을 때는 두 가지 연락 방식을 모두 사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부모의 생일 선물로 무엇을 샀는지와 같이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단순하게 말할 때는 가족단톡방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가족 누군가가 다쳤을 때 누가 돌볼 것인지 논의하거나, 한 가족의 의견에 대해 더 깊은 대화를 나눠야 할 때는 서로 전화하였다. 홍채아 씨가 보여준 형제자매만 있는 단톡방에서는 어버이날 때 무엇을 할지 논의하다가 메시지가 끊긴 내역이 있었다. 그는 이때 동생에게 전화가 왔고, 가족단톡방에서 전화로 넘어가 서로 어버이날 때 무엇을 할 것인지를 논의하였다고 했다.

[동생에게] 전화가 와요. 여기다[단톡방에] 답장할 때도 있지만, “누나, 난 벌써 했어.” 그럴 때도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벌써 “누나, 나는 했

어.” “언니, 난 내려가 보고 필요하신 거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전화 통화할 때도 있고.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보냈을 때, 저는 전화를 할 때도 있고. (중략) [전화로 넘어가는 이유는] 내용이 기니까? 특으로는 전달이 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중략) 일단은 이거는 전화로 바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나는 계획하고 있는데, 뭘 계획하고 있는지 물어볼 때.

(홍채아, 인터뷰 1)

연구참여자들은 가족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화나 면대면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메신저로 소통하면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아도 안부를 물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특성으로 인해 개인적인 연락을 덜하게 되었다고 했다. 가족단톡방이 없을 때는 가족의 근황이 궁금하면 전화하여 그동안 못했던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단톡방이 생기고 서로의 근황을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또, 메신저를 통한 대화는 주로 짧고 간결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과 깊고 생생한 상호작용을 하지 않았다. 또, 메신저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서로의 얼굴이나 표정, 어조, 목소리 등 비언어적 상징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화는 목소리나 어조 등을 통해 상대의 건강상태, 기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 면대면 대화는 서로의 표정을 보고 ‘피부가 부딪히며’ 메신저로는 해소할 수 없는 만남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친밀감을 강화하였다. 이런 점에서 가족단톡방은 떨어져 있는 가족과 연락하기에는 편리한 도구이지만, 전화나 면대면 대화를 대체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시댁 카톡은, 카톡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안부 전화를 덜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하면 그냥 한두 마디로 해서 ‘그랬구나’ 알고 있으니까, 인지를 하게 되니까. 그냥 그걸로 끝내 버리는데. 만약에 한두 달 연락이 없었거나, 궁금하면 전화를 하잖아요. (중략) 예전에는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하고 물어보고. “요즘 어떻게 했더니...” 그러다 보면 이 얘기 나오고, 저 얘기 나오다가, 이렇게

되는데. 카톡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찌고 꽃 예쁘네요’ 하고 그냥 끝인 거야. (진미경, 인터뷰 2)

카톡으로 하면 아웃 오브 사이트(out of sight)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웃 오브 마인드(out of mind)가 되는 것 같아요. 저랑 되게 친했던 사촌 누나가 있어요. (중략) 카톡 계속 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옛날 같진 않아요. 카톡은 계속 줘요. ‘잘 지내? 건강하지? 생일 축하해.’ 이렇게 보내고. 저는 카톡 때문에 뭔가 연결고리는 계속해서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연결고리는 끊어지지 않아요. (중략) [하지만] 이걸 친밀도를 상승시킨다든가, 결국에는 계속해서 카톡으로 얘기하고, 뭔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같이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거리가 멀어지고, 안 만나다 보면은, 제 생각에는 친밀도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높아지진 않은 것 같아요]. (한세훈, 인터뷰 2)

제 5 장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단톡방을 활용한 가족 간 상호작용을 통해 기혼자는 무엇을 체험하며, 이들에게 가족단톡방의 의미는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자녀, 배우자,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카카오톡을 통해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성인남녀 10명을 심층면접하였다. 이들은 모두 하나 이상의 가족단톡방을 사용하고 있었다. van Manen(1990)의 해석학적 현상학에 근거하여 ‘온 가족이 모여있는 가상의 거실, 가족단톡방’, ‘각자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가족단톡방’, ‘유용하지만,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가족단톡방’이라는 총 3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체험의 구조를 기반으로 발견한 기혼자의 가족단톡방의 의미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단톡방은 다양한 하위체계에 속해 관계를 이어가는 가상의 거실이였다. 본인의 원가족에만 속해있던 개인은 결혼을 통해 배우자의 원가족의 구성원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면서 다양한 하위체계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기혼자의 가족단톡방에는 형성가족, 본인의 원가족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원가족, 친인척 등 다양한 구성원이 포함되었다. 기혼자는 단톡방을 활용해 가족과 비대면으로 근황과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면서 상호작용하며 관계를 이어갔다. 특히, 가족은 공통된 경험을 기반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각자의 생활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기 때문에(Segrin & Flora, 2019) 다른 관계에 비해 텍스트 중심의 메시지로 인한 오해나 갈등 없이 편하게 소통할 수 있었다. 또, 단톡방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혼자는 가족과 직접 대화하지 않아도 서로의 일상을 확인하고 관계를 느슨하게라도 이어갈 수 있었다.

단톡방은 여러 가족구성원이 모여있는 거실이라는 점에서 기혼자가 편하게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 즉 가족경계에 따라 상호작용 방식에 차이

가 있었다. 불편하거나 어색한 관계의 다른 구성원과 같은 단톡방에 있을 때 메시지의 내용과 형식을 고심하여 메시지를 보내었다. 기혼자가 다른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함도 있지만, 반대로 단톡방에 있는 모두가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의 메시지가 다른 구성원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다. 즉, 긍정적인 관계의 가족구성원과 소통할 때와는 달리, 불편하거나 어색한 관계의 다른 구성원과 같은 단톡방에 있을 때 평상시에도 본인의 역할과 위치를 신경 써야 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현실에서의 가족관계가 단톡방의 상호작용 방식에 반영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가족단톡방은 가족을 주체적으로 실천하기에 적절한 가상의 거실이었다. 이는 미국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단톡방의 활용 경험을 연구한 Resor(2021)의 논문에서도 나타난 결과이다. 기혼자는 단톡방을 통해 텍스트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이모티콘 등을 활용하여 가족과 일상을 공유하였다. 단톡방을 통해 매일 일상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생일이나 제사와 같이 매년 가족행사가 있을 때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규칙적으로 가족을 실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며느리나 사위 등 기혼자의 다양한 역할 수행과 연결되었다. 예를 들어, 기혼자는 학업 및 생활 지도, 정서적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형제자매와 함께 본인의 부모, 배우자 부모를 돌보며 샌드위치 세대로서의 역할(Miller, 1981)을 수행하였다. 즉, 가족과의 대면 소통이 감소하는 시점에 기혼자가 단톡방을 통해 일상적으로, 규칙적으로 가족을 실천하면서 가족 기능을 강화하였다.

단톡방에서 다른 하위체계에 비해 부부 하위체계에서의 상호작용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배우자와 단톡방보다는 면대면 대화, 전화와 같은 일대일 채널을 통해 주로 소통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었다. 기혼자들은 배우자와 소소한 일상부터 돈이나 자녀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까지 함께 논의했다. 다른 가족과 공유해도 되는 내용은 단톡방에 공유하지만, 부부 사이에서 논의해야 할 사적인 내용들은 모두가 볼 수 있는 단톡방

보다는 일대일로 소통하였다. 또, 배우자와 동거할 때는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으므로, 급하게 논의할 일이 아니라면 메신저나 단톡방을 통해 소통할 필요가 없었다. 즉, 기혼자는 단톡방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족을 실천하지만, 하위체계에 따라 가족을 실천하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기혼자는 본인의 가족관계 및 상황에 따라 단톡방을 주체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한 개인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가족을 선택할 수 없으며, 가족구성원과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단톡방은 가상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가족관계나 대화 주제 등을 고려하여 기혼자가 직접 그 공간을 구성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기혼자는 불편하거나 어색한 관계의 가족과는 아예 단톡방을 형성하지 않았다. 혹은 그 가족을 포함하지 않고 단톡방을 형성하거나, 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의 가족을 분리하여 여러 개의 단톡방을 형성하기도 했다. 긍정적인 관계의 가족이라고 해도, 특정 주제와 관련 없는 사람은 단톡방에 초대하지 않았다.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는 일부 가족이 단톡방에서 나가기도 했다. 현실세계의 가족과는 완전히 단절될 수 없지만, 단톡방은 가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단톡방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기혼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단톡방 및 가족을 구성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라 볼 수 있었다.

셋째, 젠더와 연령에 따라 가족 내 위계와 역할이 차별화되는 한국가족에서 가족단톡방은 전통적인 가족규범이 상호작용의 패턴을 결정하는 가상의 거실이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가부장적 가족 규범이 약화되고 있지만, 단톡방에서 남성 및 연장자 중심적인 관행이 여전히 중요한 맥락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단톡방에서 여성은 자녀의 학업이나 생활을 지도하는 자녀 돌봄의 주책임자이자 관계 유지 역할(kin-keeping role)을 수행하였다. 남성은 단톡방을 통해 자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였으나, 여성 기혼자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지지자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였다. 가족행사가 있을 때는 연장자, 혹은 남성이 최종결정자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단톡방에 있는 구성원과 함께 가족행사에 대해 의논하지만, 만이나 남성 형제자매가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주도하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즉, 한국가족의 맥락에 따라 단톡방을 활용한 기혼자의 상호작용에서 젠더화되고 위계화된 모습이 나타났다.

넷째, 비대면의 특성이 있는 가족단톡방은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위해 가족과의 대면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가상의 거실이었다. 텍스트를 중심으로 소통하는 가족단톡방은 가족과 감정을 공유하기 어렵고,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표면적인 대화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컸다. 그런 점에서 가족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소리, 어조, 말투 등 반언어적 상징을 활용하는 전화나 표정, 몸짓, 자세 등 비언어적 상징을 활용하는 면대면 대화와 같은 신체적인 교류가 중요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단톡방은 가족과 상호작용하는 보조적인 수단 중 하나일 뿐 가족과의 대면 의사소통을 대체할 수는 없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가족단톡방은 온 가족이 모여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상의 거실이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거실은 ‘가족이 일상 모여서 생활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가족과 대면으로 상호작용하기 어려운 한국 사회에서 가족단톡방은 다양한 하위체계가 비대면으로 모여 생활하며 관계를 이어가는 공간이었다. 그 안에서 기혼자들은 가족관계 및 역할에 따라 일상을 공유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등 가족을 실천했다. 또, 단톡방이 가상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기혼자들은 단톡방을 주체적으로 구성하고 활용하였다. 불편하거나 어색한 관계의 가족을 단톡방에서 제외하거나, 갈등이 있을 때 단톡방에서 나오는 등 본인과 가족 모두가 편할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활용한 것이었다. 이때, 한국의 전통적 가족 규범이 상호작용 패턴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비대면의 특성이 있는 단톡방을 통해 가족과의 대면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기술이 꾸준히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은 스마트폰과 분리할 수 없는 존재이다. 가구규모가 축소되고, 가족과 함께 있는

공유시간이 감소하여 가족 기능이 약화하는 시점에서 가족과의 비대면 상호작용, 특히 여러 가족과 동시에 소통할 수 있는 가족단톡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단톡방보다 더 발전한 새로운 소통 채널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가족의 비대면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는 탐색적 토대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하나의 가족체계에서 한 명의 가족구성원만을 면접했다는 한계가 있다. 가족체계이론에 따르면 가족은 상호의존적인 존재로,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족구성원의 의견을 복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Reczek, 2014). 그런 점에서 후속연구에서는 기혼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나 배우자, 부모 등 여러 가족구성원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심층면접 전사자료만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심층면접은 연구참여자의 감정, 의견, 경험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족단톡방과 관련된 경험을 연구참여자의 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들을 뿐 아니라 오랜 시간 가족단톡방을 사용하면서 과거의 기억이 왜곡됐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후속연구에서는 심층면접뿐만 아니라 실제 가족단톡방의 메시지를 활용하여 더 생생하고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단톡방 이외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가족의 소통방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의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단톡방뿐만 아니라 화상통화와 같은 새로운 소통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다양한 소통 채널 활용 경험도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모-자녀 혹은 부부와 같은 하나의 하위체계에 집중된 비대면 상호작용의 의미에 대한 탐색을 기혼자의 형제자매, 친인척 등 확대가족까지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그리고 가족단톡방을 하나의 체계로 이해함으로써 그 안에서 나타나는 가족의 복잡한 관계와 역동을 살펴보고, 어떻게 가족을 실천하는지, 기혼자의 정체성, 역할, 상호작용, 맥락이 한국가족의 상호작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지닌다.

참 고 문 헌

- 강연임(2017). 카카오톡 메신저의 소통 양상과 사회언어학적 특성. **어문 연구**, 92, 5-37.
- 김애령(2009). 현상학과 해석학의 방법론적 적용의 문제: “체험연구”의 현상학적 토대와 해석학적 확장. **탈경계 인문학**, 2(1), 231-258.
- 김자아, 이상봉(2018.08.19). “가족 단톡방에 며느리도 초대하고 싶은 데...”.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81700400731590>
- 모바일인덱스(2022.01.12). 2021년도 모바일 앱 랜드스케이프.
<https://www.mobileindex.com/insight-report?pid=179>
- 박근희(2017.09.29). [friday] 닥의 ‘家톡’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8/2017092801874.html
- 박은지(2019.05.28). 결혼했지만 ‘양가 단톡방’엔 안 들어갔습니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0190
- 유정아, 박남기(2019).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의 잠복 관찰: 카카오톡 이용자의 성격 및 심리적 특성의 영향. **한국방송 학보**, 33(6), 39-75.
- 이남인(2014). **현상학과 질적 연구: 응용현상학의 한 지평**. 한길사.
- 이종임(2014). 대학생들의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과 일상화 경험에 관한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29(1), 37-70.
- 이지영, 김주섭(2014).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의 채팅 룸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 한국과 일본의 스마트폰 사용자를 중심으로.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4(4), 283-293.

- 정상원(2018).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의 방법론적 탐구. *질적탐구*, 4(1), 1-30.
- 정희석(2012). 한국형 SNS의 진화: 카카오톡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0(10), 147-154.
- 허상희(2017).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카카오톡 사용양상 분석. *한민족어문학*, 76, 163-199.
- Allen, K. R., & Henderson, A. C. (2017). *Family theories: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Wiley Blackwell. 정유진, 유현경, 정혜정 역 (2021). *가족이론: 기본 개념과 적용*. 학지사.
- Bochner, A. P., & Eisenberg, E. M. (1987). Family process: Systems perspectives. In C. R. Berger & S. H. Chaffe (Eds.), *Handbook of communication science* (pp. 540-563). Sage.
- Boyce, C., & Neale, P. (2006). Conducting in-depth interview: A guide for designing and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for evaluation input. *Pathfinder International Tool Series*, 1-12.
- Blabst, N., & Diefenbach, S. (2017). WhatsApp and wellbeing: A study on WhatsApp usage, communication quality and stress. *Proceedings of the 31st International BCS Human Computer Interaction Conference (HCI 2017)*, 1-6.
<https://doi.org/10.14236/ewic/hci2017.85>
- Church, K., & de Oliveira, R. (2013). What's up with WhatsApp? Comparing mobile instant messaging behaviors with traditional SMS. *Proceedings of the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Computer Interaction with Mobile Devices and Services*, 352-361. <https://doi.org/10.1145/2493190.2493225>
- Faris, I. N., Budiarti, D., & Permadi, A. (2021). Emojis in Indonesian intergenerational family Whatsapp group. *Proceedings of the Thirteenth Conference on Applied Linguistics*, 217-224.

<https://doi.org/10.2991/assehr.k.210427.033>

- Fernández-Amaya, L. (2021). Online disagreement in WhatsApp Groups: A comparative study of Spanish family members and work colleagues. *Discourse & Communication, 15*(5), 542–558.
<https://doi.org/10.1177/17504813211017711>
-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Doubleday.
- Gong, W. J., Wong, B. Y. M., Ho, S. Y., Lai, A. Y. K., Zhao, S. Z., Wang, M. P., & Lam, T. H. (2021). Family e-chat group use was associated with family wellbeing and personal happiness in Hong Kong adults amidst the COVID-19 pandemic.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17), Article 9139.
<https://doi.org/10.3390/ijerph18179139>
- Klein, D. M., & White, J. M. (1996). *Family theories: An introduction*. Sage.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is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ller, D. A. (1981). The ‘sandwich’ generation: Adult children of the aging. *Social Work, 26*(5), 419–423.
<https://doi.org/10.1093/sw/26.5.419>
- Mogharrab, A., & Neustaedter, C. (2020). Family group chat: Family needs to manage contact and conflict. *Extended Abstracts of the 2020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 1–7*. <https://doi.org/10.1145/3334480.3382872>
- Morgan, D. H. J. (1996). *Family connections: An introduction to family studies*. Polity Press.
- Morgan, D. H. J. (2011). *Rethinking family practices*. Palgrave

- Macmillan.
- Segrin, C., & Flora, J. (2019). *Family communication* (3rd ed.). Routledge.
- Seufert, M., Hosfeld, T., Schwind, A., Burger, V., & Tran-Gia, P. (2016). Group-based communication in WhatsApp. *2016 IFIP Networking Conference (IFIP Networking) and Workshops*, 536-541. <https://doi.org/10.1109/ifipnetworking.2016.7497256>
- Stokes, R., & Hewitt, J. P. (1976). Aligning ac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1, 838-849. <https://doi.org/10.2307/2094730>
- Stryker, S. (1968). Identity salience and role performance: The relevance of symbolic interaction theory for family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 558-564. <https://doi.org/10.2307/349494>
- Reczek, C. (2014). Conducting a multi family member interview study. *Family Process*, 53(2), 318-335. <https://doi.org/10.1111/famp.12060>
- Resor, J. M. (2021). *Family processes in family group chats*. Doctoral dissertation. The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 Taipale, S., & Farinosi, M. (2018). The big meaning of small messages: The use of WhatsApp in intergenerational family communication. *Human Aspects of IT for the Aged Population. Acceptance,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532-546. https://doi.org/10.1007/978-3-319-92034-4_40
- Turner, L. H. (1970). *Family interaction*. Wiley.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신경림, 안규남 역(1994). *체험 연구*. 동녘.
- van Manen, M. (1997).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2nd Ed.). Routledge.
- van Manen, M. (2014). *Phenomenology of practice: Meaning-given methods in phenomenological research and writing*. Left Coast Press.
- Whitchurch, G.G., & Constantine, L.L. (2009). Systems Theory. In P. Boss, W. J. Doherty, R. LaRossa, W. R. Schumm & S. K. Steinmetz (Eds.),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s* (pp. 325-355).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0-387-85764-0_14
- Yerby J., Buerkel-Rothfuss, N., & Bochner, A. P. (1995). *Understanding family communication* (2nd ed.). Gorsuch Scarisbrick.
- Zhao, S. Z., Luk, T. T., Guo, N., Wang, M. P., Lai, A. Y., Wong, B. Y., ... & Lam, T. H. (2021). Association of mobile instant messaging chat group participation with family functioning and well-being: Population-based cross-sectional study.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23(3), Article e18876.
<https://doi.org/10.2196/18876>

Abstract

Virtual Living Room Where the Whole Family Gathers: Married Korean's Lived Experiences of Family Group Chats

Lee, Jee Hoo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lived experiences of married adults who interact with their families using a group chat application. In Korea where families do not have much time to interact face-to-face due to smaller households and increased individual social time, family group chats have become an important tool to interact without meeting face-to-face with family members. As family group chats are increasingly used to communicate with one's extended family and relatives as well as the nuclear family, group chats can be a tool to understand the family system including

a wider range of subsystems. In addition, given that interacting with family members through group chats can be a family practice, examining this practice can help us understand how married people experience and organize their families. Lastly, since the symbolic meaning is based on one's role, identity, interaction, and context according to symbolic interactionism, we can understand the role of group chats in family communication, the context of Korean families when interacting with family members, and the role or identity of married people by exploring their lived experiences when interacting with family members using group chat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married women and men who routinely communicate with their children, spouses, parents, and parents-in-law through the Kakaotalk application, and who had experienced at least one family group chat. Data were analyzed based on van Manen's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method.

The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nts interacted with various family members such as extended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as well as nuclear family members through group chats. They shared details about their daily life or discussed family events. Family group chats were also a place where family members gathered and communicated comfortably. However, they often were careful about exchanging messages so as not to lower the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s. Participants also used and constructed family group chats in their own way. Family members were chosen to be included in group chats according to the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s or conversation topics. Some family members left group chats when there were conflicts with other family members. Group chats became a tool for participants to conveniently interact from a distance instead of

face-to-face with their family members. However, group chats could not replace face-to-face conversations or phone calls, as hearing family members' voices and physical contact were still considered important for family relationships.

Family group chats were perceived as the virtual living room where the whole family gathered in various forms. First, family group chats were the virtual living room where various subsystems could gather virtually and keep in touch with family members who were difficult to meet face-to-face. Second, family group chats were the virtual living room where married people developed the family practice of sharing their daily lives and performing their family roles. Given that group chats were a virtual space, married people independently organized the space according to family relationships, such as excluding family members with whom they had uncomfortable relationships, or they left the group chats when there was a conflict. Third, family group chats were the virtual living room where traditional gender roles and patriarchy were evident in the context of Korean families. Fourth, family group chats were the virtual living room where the importance of face-to-face interaction between families for positive family relationships was emphasized in the era when people cannot live without a smartphon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exploring the lived experiences of married people who interact with family members using group chats by considering not only parents, children, siblings, and spouses, but also extended family members such as parents-in-law and relatives. The findings have theoretical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family group chats as a system, and examining how married people experience family in group chats. The findings also

shed light on the context of the Korean family, the roles of family group chats, and the role and identity of married people in Korean family interactions.

keywords : family group chat, non-face-to-face communication, family system, family practice, symbolic interactionism, hermeneutic phenomenology

Student Number : 2021-29295